

표지면지

일 정 안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포럼

사회 : 박영선(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장)

시 간	내 용
9:40 ~ 10:00	접수
10:00 ~ 10:05	축 사 서영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10:05 ~ 10:10	인사말 박영선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장)
10:10 ~ 10:40	주제발표 [주제발표1] 아동청소년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적 관점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주제발표2] 서울소재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성인식과 성교육 욕구 조이다혜 (서울여성회 정책위원) [주제발표3] 아동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 김미영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교육사업팀장)
10:40 ~ 11:10	
11:10 ~ 11:40	
11:4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4:30	주제별 토론
14:30 ~ 15:00	종 합 토 론
15:00	폐 회

주제발표

1. 아동청소년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적 관점 1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2.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성인식과 성교육 욕구 17
조이다혜 서울여성회 정책위원
3. 아동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 방향 45
김미영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교육사업팀장

사례토론

1. [몸교육] 내 몸 알고 사랑하기 65
조민옥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 강사
2. [성교육] 순결교육이 아닌 성적자기결정권 교육으로 79
김황수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 강사
3.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성폭력 문제, 해결의 시작은 건강한 경계교육이다 91
김유리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 강사
4. [연애교육] 연애에도 공부가 필요해! 101
한혜선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교육개발팀장
5. [성평등교육] 성평등, 행복으로 가는 길 109
이경희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강사

1

주 제
발 표

아동청소년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적 관점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발제] 지역아동센터 아동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포럼

아동청소년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과 성인지적 관점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이하 성평등교육센터)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과 협약을 맺고 지역아동센터 성교육지원사업을 위탁받아 교육을 진행하였다. 성교육지원사업은 4개의 주제(몸, 성, 성폭력예방, 성평등)로 4회차(회당 1시간 30분)로 운영되었으며, 2012년에는 2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24회차의 집중교육이 진행되었다. 2년간의 성교육지원사업 기간 동안 서울소재 200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7812명(연인원)의 아동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및 생활복지교사 교육, 성동아리,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아카데미 등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글을 통해서 2년 동안의 교육운영을 통해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의 성(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 목표

아이들과 많이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교육이라는 것은 희망을 주고받으며 꿈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노래가사처럼 성교육지원사업의 가장 큰 고민은 '성교육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가', '어떤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가' 즉,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성폭력예방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고, 성교육은 이것의 바탕이 되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기에 현재 우리 사회는 녹록치가 않다.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아동성폭력과 성폭력 뉴스는 교사와 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이들과 성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집단교육,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느낌은 속상함이다.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먹거리를 준비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교사와 부모 등 모든 사람의 노력이 성폭력 앞에서는 부질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성폭력 사건 앞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감은 아이들도 갖고 있다. 성교육을 통해 만나는 아이들의 글에서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찾은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예방은 단순히 ‘성폭력은 나쁘다’라는 이야기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과연 성폭력이 어떤 문제이고, 그것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평등교육센터의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현실에 대한 인식(성폭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기는가)과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이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변화의 힘 기르기(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 교육, 타인을 존중하는 성과 건강한 경계교육¹⁾)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성인지적 관점이 있다.

성폭력과 성인지적 관점

성폭력은 오랫동안 있어왔다. 인류의 차별이 생긴 그 순간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방식이 성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한참 후였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의 성과 즉, 성인지적 관점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

‘여성운동사’라는 제목의 강의를 할 때 수강생들에게 묻는 것이 있다. ‘만약 당신이 00년 전에 여성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100년 전에 여성으

1) 아동 성폭력의 이해와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 이현혜, 2011년도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1

로 살면서 남편의 허락 없이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내가 받은 임금이 고스란히 남편의 것이 된다면, 만약 당신이 50년 전에 태어나 피임과 임신중절이 불가능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이 넘게 죽어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폭력에 대한 30년 전 여성의 삶에 대한 질문을 한다. '만약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아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면, 성폭력을 겪은 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순결여부를 묻는다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 직장 내 성희롱이 법에 명시되고 처벌된 것은 1998년의 일이다. 1993년 발생한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교수가 조교에게 성적인 접근을 하고 이를 거절하자 해고한 일로써 요즘 일어난 일이라면 명백한 성희롱으로 처벌됐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가와 학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성희롱을 '직장 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있을 수 있는 일'로 보는 잘못된 통념이 재판과정에도 반영된 것이었다.²⁾ 그러나 성희롱은 직장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이며, 직장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 즉, 성인지적 인식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제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직장내성희롱 관련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은 성인지적 관점에 의해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해결의 방법이 만들어져 온 것이다.



1995년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당시 여성의 전화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http://soodapower.tistory.com/2>)

성인지적 관점에 의해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제정의 되는 과정에서 생긴 중요한 인식 3가지는 '성폭력은 정조의 죄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이다', '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이며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성폭력의 예방과 해결은 피해자의 행동변화가 아니라 가해자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회의 잘못된 고정관념의 변화로

2) 민경자, 성폭력 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 전화, 한울, 1999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조의 죄? 성적자기결정권!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처벌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문제이다. 그러나 1995년 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성폭력은 정조의 죄로 여겨졌으며, 법률 개정 후에도 판례 등에는 성폭력을 정조의 죄로 보는 관점이 남아있다. 똑같은 사건을 정조의 죄로 보는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는가는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결과와 피해자에 대한 입장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정조의 죄로 규정할 경우, 성폭력은 피해여성에게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보호해야할 정조’를 가진 여성에 대한 범죄로 규정되는 것이다.³⁾ 이럴 경우 정조(순결)를 가진 여성은 보호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호하지 않는 편파적인 결과가 생기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라는 영화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등장한다. 집단강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영화라서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 실제 법원의 판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학생일 경우는 흉기사용 등의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경우도 강간으로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주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폭력과 협박, 불법적인 가택침입이 있었음에도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⁴⁾

성폭력을 정조의 죄로 정의하는 것은 여성에게 정조(순결)가 중요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성폭력을 겪은 여성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소중한 순결을 잃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잃은 순결은 되찾을 수 없으므로 성폭력은 해결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조의 죄에서는 강간의 경우 남성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피해자(범죄의 객체)를 여성(부녀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조(순결)는 여성에게만 있는 것, 여성에게만 중요한 것이라는 우리사회의 고정관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식하게 되면, 여성은 성적 권리(자기결정권)를 가진 존재이며 해결과정은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가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건, 성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피

2) 변혜정, 성폭력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섹슈얼리티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엮음), 동녘, 1999

4) 장임다혜, 성폭력법답론, 성폭력에 맞서다,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울, 2009

해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운동진영에서는 성폭력을 정조의 죄가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결정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자율성 있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⁵⁾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폭력이 누구에게나 있고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한 인권침해이며, 해결과정을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되찾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상황(가해자 피해자의 상태, 관계 등)에 따라 면밀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으로 이해된다. 이때 ‘동의’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남는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YES or NO’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을 반영해야만 정확한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사회에는 ‘여성의 NO가 YES 일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여성의 의사표현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발생한다. 실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적극적으로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으니 승낙으로 받아들였다’는 반대주장도 적지 않게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처럼 권력관계가 포함되었을 때, 아동성폭력의 경우처럼 물리적·정신적 힘의 차이가 있을 때, 친밀감을 도구로 성적인 상황을 유도했을 때 피해자는 ‘NO’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기준은 ‘성적 결정에서의 자율성, 자발성’ 즉, 본인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성적인 상황을 선택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진출처 :
<http://wiiuhacks.com/wii-us-dirty-little-secret-installs-firmware-updates-without-permission/>

피해자유발론을 넘어서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성폭력이 전적으로 가해자

5) 김영애, 성적자기결정권의 이해

의 잘못’이라는 인식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당연한 상식이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서는 왜곡되어왔기 때문이다. 여타의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지만, 성폭력은 피해자가 비난받는 유일한 범죄이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순결을 잃은 여성으로 비난받기도 하고, 성폭력을 유도했거나 여지를 주었다는 ‘피해자유발론’에 시달리기도 한다.

피해자유발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 또는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성폭력의 여지를 주거나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자체를 의심받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자비난은 성폭력 사건 해결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 성폭력을 쉬쉬 해야 할 일, 부끄러운 일로 여길 때 피해자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성폭력 사건의 해결 의지를 갖기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해결 빈도를 낮춰 범죄를 지속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다. 피해자가 어떤 옷차림을 하건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건 그것은 그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자유일 뿐이며, 이것이 성폭력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선택이며 책임이다.



그렇기에 성폭력의 해결 역시 가해자에 대한 대책 또는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보면 성폭력 예방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곳은 몰래카메라 피해

가 많은 곳이니 주의하라’, ‘의심이 들 때는 몸을 90도로 돌려 바꾼다’, ‘계단을 오를 때 핸드백이나 가방으로 뒤를 가린다’ 등의 성폭력 대처요령은 피해가 예상되는 여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성폭력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강화와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인식과 실천을 바꾸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과 성교육의 경우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교육 이후 성폭력예방의 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폭력과 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아동만?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와 경각심 속에서 아동들은 수많은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성폭력예방교육이 일 년에 한번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성교육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면 “많이 했어요. 다 알아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은 대부분의 경우 그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성폭력예방의 주체가 아동과 청소년인가. 성폭력 예방을 3단계로 나눌 때 1차 예방은 안전한 환경조성, 2차 예방은 성폭력의 위험단계에서 방지를 위한 교육, 3차 예방은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 단계이다. 세 가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안전한 환경조성이며, 이것은 아동이 아니라 사회와 어른들의 몫이다. 그런데도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이 집중되는 것은 그 책임을 과도하게 아이들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예방교육은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아동 교육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육, 건강한 경계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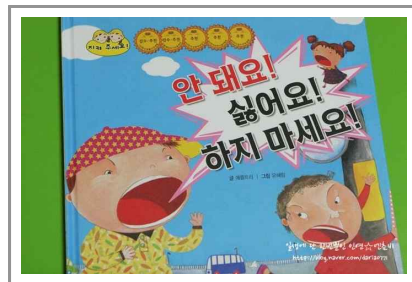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목 적	안전한 환경 조성	위험요소 감소와 보호요인 증대	조기발견과 조기차단	재발방지
교 육 내 용	- 성인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 성인대상 위험사인(sign)에 대한 교육 - 아동대상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교육, 경계교육	아동성폭력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가정폭력, 방임, 빈곤 등의 문제 제기	- 길들이기 과정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 건강 모델 제시와 교육 - 피해아동을 위한 환경의 지속성 유지 - 보호자의 보호기능 강화	- 엄격한 법의 집행 - 아동에게 건강한 애착과 신뢰의 대상자 제공 - 정신적 외상의 최소화 -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교 육 대 상	전 국민	위험아동과 부모, 교사 등 보호자	피해아동과 보호자, 미성년 가해자	피해아동과 가족, 가해자와 가족

<출처 : 박인선, 아동성학대 예방과 상담적 접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

안돼요? 싫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안돼요 싫어요(SAY NO) 교육’이다. “낮선 사람이 너의 몸을 만지면 ‘안돼요’라고 말해야 한다.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면 ‘싫어요’라고 말해야 한다”가 교육내용의 핵심이다. 물론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며 그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성폭력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아동성폭력의 가해자는 70~80%가 면식범이다.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고 어른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온 아이들이 “안돼요”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면식범이 친밀감을 무기로 접근 할 때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은 어려우며, 아동청소년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아동이 거부 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성적인 접촉 또는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단순한 거부의사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가 거절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역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의 경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타겟(target)을 정하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간의 길들이기(grooming) 단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단계적으로 스킨십 강도를 높여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의 거부 의사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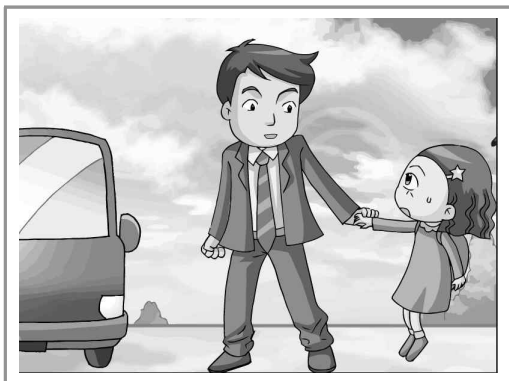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교육이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아동성폭력의 단계 중 ‘비밀강요’ 단계가 있다.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비밀유지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유지를 강요하기 위해 아이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너는 나쁜 아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엄마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거다.”라고 말하거나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한다. 아이가 성폭력 상황을 말하려면 본인이 술과 담배를 한 것을 밝혀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돼요 싫어요” 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아이에게 죄책감을 강화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성폭력을 겪은 아동이 “내가 ‘안돼요’를 못해서 성폭력을 겪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이며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 따라서 성폭력 상황에서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교육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대처교육이 아니라 예방교육



또한 현재 성폭력예방교육에서 많이 진행되는 것이 ‘대처교육’이다. 대처교육이란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상황을 두고 대처법을 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낯선 남자 어른과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경우’ ‘집에 혼자 있는데 택배가 올 경우’ 같은 상황을 주고 대처법을 강의 또는 상황극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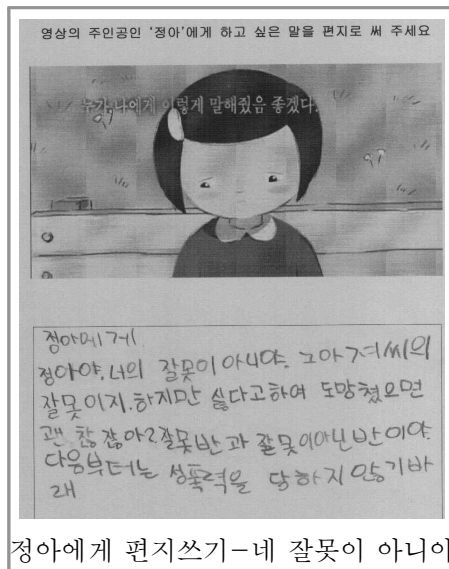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교육활동지를 보면 ‘성폭력 상황에서 저항해야 한다’고 적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서는 성폭력 상황에서 저항하지 못한 사례를 보고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납치될 뻔 한 아동이 저항을 해서 빠져나오는 영상이 뉴스에 방영된 후 저항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저항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저항했느냐, 저항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느냐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교정과 사회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저항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저항의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돌리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돌려놓는 일이 된다.

또한, 이러한 대처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른들을 경계하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만드는 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세상과 모든 어른과 성은 공포로 자리잡아가는 것이다. 어릴 때 ‘전쟁이 날까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까봐’ 두려움을 겪었던 어른들은 알 것이다. 아동에게 불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폭력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것이다. 성폭력은 그 사건의 1차 피해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며, 사건이 일어날 경우 피해자임에도 비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모든 여성들에게 공포로 여겨지며 여성의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옷차림으로 어느 시간까



지 어디에 있을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이지만, 성폭력의 공포는 여성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폭력의 또 다른 피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무력감을 강화하여 폭력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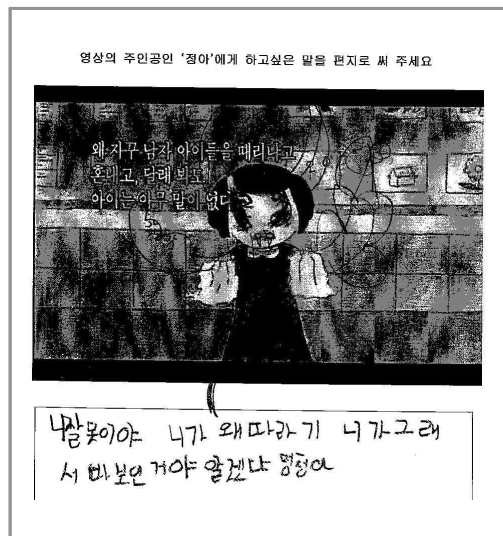
그러므로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처교육이 아니라 예방교육이 되어야 하며, 성폭력을 예방할 의무는 세상 모든 어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다만 아이들은 성에 대해 건강한 경계교육(타인과 나를 구분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도 피해자유발론?

아동성폭력은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실천(대표적으로 피해자 비난)을 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아동은 성적인 존재가 아니며, 그에 따라 성적인 여지를 주거나 유도를 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따라 피해자 비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아의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유발론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유발론의 고정관념은 아동청소년에게도 이미 자리하고 있다. 아이들은 피해자에게 편지쓰기 활동지에서 피해자유발론 고정관념을 그대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유발론은 만약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자책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예방교육에서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이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성은 이상한 것? 감추고 싶은 것?

성폭력예방교육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전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폭력 자체가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의식과 실천(타인의 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 여성을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것)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예방교육과 성교육은 별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교육은 아이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은 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동안 교육을 통해 만나본 경험을 한마디로 하면 ‘아이들은 백지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성에 대해 전혀 다른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나(우리 아이는 아직 성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너무 잘 안다(요즘 애들은 이미 알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 다 맞는 이야기이면서 틀린 이야기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의 개인미디어 사용으로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 성과 관련된 매체를 접하기 쉬워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못된 성지식이나 고정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선 많은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성은 공포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간혹 아이가 성에 대해 피하려고 할 경우, 성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성교육을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성에 대해 모르는 것은 오히려 자기 기준을 가질 수 없게 한다. 그리고 자기기준이 없을 경우 성적이 상황을 만났을 때 선택하거나 협상하기 어려우며, 사회의 고정관념에 따라 행동하거나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쉽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성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성은 이상한 것, 변태’라는 것이다. 주변에서 엄마가 머리만 쓰다듬어도 “변태야”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성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은 사회와 어른들이 생각하는 ‘성은 이런 것이다, 아이들의 성은 이런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성평등교육센터 2차시 성교육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성과 나쁜 성’을 적는 시간이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은 성에는 ‘결혼’을 적고, 나쁜 성에는 ‘그 외의 대부분의 성적인 행동’을 적는다. 성폭력과 성매매를 적기도 하지만 키스부터 포옹, 자위, 동성애, 노인들의 성을 모두 나쁜 성으로 고른다. 이미 성에 대해 일정한 나이(어리면 안되고 많아도 안되고), 일정한 법적 규정(결혼 이외의 성은 불건전한 것)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성적인 욕망이 없거나 실천을 안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욕망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 사이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커져간다. 본인이 느끼는 성적인 감정과 욕망을 잘못된 것, 이상한 것으로 느끼는 아이들은 성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주변 어른들과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관점을 배울 기회에서 멀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고정관념이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성교육을 통해서 변화되기는커녕 강화되기도 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의 옷차림 또는 몸가짐 등을 거론하면서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임에도 조심해야 할 것은 여성 또는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미루는 것이 바로 ‘피해자 유발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만약 성폭력을 겪게 되면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요?”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한다. 이런 교육은 성폭력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에도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내용의 변화가 절실하다.

긍정과 존중을 배우는 성평등교육

이상으로 사회 전반의 성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의식이 아동청소년 교육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런 교육들이 성폭력을 예방하기 보다는 대처하는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의 목표는 실제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성폭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기는가)과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이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변화의 힘기르기(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 교육, 타인을 존중하는 성과 건강한 경계교육)를 필요로 하며, 성인지적 관점이 정립되고 교육내용과 방식에 녹아들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몸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 성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성폭력 대처교육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큰 틀에서 성평등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위한 것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현재를 보내면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자신의 몸과 욕구까지 있는 그대로 사랑하되, 타인과 폭력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2

주 제
발 표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성인식과
성교육 욕구

조이다혜
서울여성회 정책위원

[발제] 지역아동센터 아동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포럼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성인식과 성교육 욕구

조이다혜 서울여성회 정책위원

1. 서론

(1) 문제제기

최근 아동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학교 외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들의 직업을 보면 학교 보건교사, 경찰, 전문 강사 등 다양하며, 교육 주체의 성인식과 관점에 따라 교육 내용 또한 천차만별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성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된 몇 가지 교육 사례를 보면 대체로 성역할을 강화하거나 성폭력 대처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스마트 폰 등 개인 매체가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은 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더욱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성’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니다.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이성애 중심의 이벤트적인 연애, 상품화된 성문화를 보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을 습득하기도 하고 직접 모방, 실천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성을 완전히 개방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적인 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되는 적절한 ‘나이’ 즉,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알 거 다 알고, 할 거 다 하고 있다’는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여전히 성을 금기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의 성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 차원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성문화에 대한 자기 입장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성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는 결코 적지 않다.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성교육 현황과 문제점은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제 적용에서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드물다. 각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교육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박혜림(2006) 연구에서 성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한 부분을 참고하면, 90년대 중반 이후 교육학이나 보건학에서의 성교육 연구는 성교육 요구도를 파악, 성교육의 효과를 분석, 또는 현재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안적 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대안들을 보면 과학적 성지식 제공을 강조하거나 또는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및 ‘건전’한 성문화 정착 등 추상적이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 성가치관인지, ‘건전한’ 성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들과는 달리 여성학 분야에서는 기존 성교육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하면서 대안적 성교육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성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기를 한다. 즉 교육에도 입장과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성교육이란 성차별 사회에서 섹슈얼리티에 매개되는 불평등한 관계를 드러내고 여성들의 다양한 성적 경험을 의미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성교육을 의미한다(박혜림, 2006).

한편 아동·청소년을 주로 ‘보호 및 규제’의 대상으로 보면서 이들의 성적 실천을 비행이나 이탈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십대의 성적 현실에 주목한 연구들과 저작들도 있다. (엄기호, 2000; 민가영, 2003; 변혜정, 2010) 이 연구들은 청소년들에게 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장려하거나 제한하는 사회 권력에 의해 십대 섹슈얼리티가 구성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부터는 변화한 성문화에서 십대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분석하면서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십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보호와 규제’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한 성적 현실에 주목하면서 성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수용하고 실천하는 섹슈얼리

티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할 때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지식과 권력 구조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것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그러므로 앞서 제기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현실과 성교육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적 현실을 제대로 고찰하고 성교육 욕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성교육 내용 구성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연구 목적과 연구과제

－ 연구목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성인식과 성적 실천 양태, 그리고 성교육 경험과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기존 성교육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찾고자 한다.

－ 연구과제

- 1)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성교육 경험을 알아본다.
- 2)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몸에 대한 인식, 성인식과 성적 실천,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평등 의식 등을 분석하여 성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과 관점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 3)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센터 관계자의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비교하고, 이후 이루어져야 할 성교육 방향을 모색해본다.

(4) 본 연구의 구성

2절에서는 자료수집과 연구방법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모두 사용하였는데, 양적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자료를 함께 수집, 분석하였다.

3절에서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연구 대상의 성교육 경험을 파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 대상의 성인식과 성적 실천을 네 개의 카테고리(몸, 성, 성폭력, 성평등)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았다.

4절은 결론으로 3절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 성교육의 개선점과 담아야 할 내용을 제안한다.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1) 양적 자료

2012년 서울여성회 부설기관 성평등교육센터(이하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한 지역아동센터 총 91개소 아동·청소년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2012년 3월에 제작하여 1차로 시범 진행하였고 2차로 문항과 내용 구성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조사 수행 기간은 2012년 4월부터 11까지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건한 설문지는 376부로 그 중 분석에 실제 사용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남학생 145명, 여학생 132명 총 277부이다.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설문 조사에 대한 이해나 응답의 정확도가 낮아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학년이나 성별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설문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도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학년별 남녀 구성 비율은 표1>과 같다.

표 1> 설문 대상 학년별, 남녀 구성비율

	실제 사용한 데이터 (실제 건한 부수)	
	남	여
초3	0(1)	0(6)
초4	0(25)	0(34)
초5	45(48)	42(45)
초6	48(48)	44(44)
중1	19(22)	17(18)
중2	13(14)	23(27)
중3	18(18)	3(3)
고1	1(1)	3(3)
고2	1(1)	0(0)
총 부수	145	132
실제 사용한 데이터	277	

설문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고 하면 해설해 주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성교육 강사단이 성교육을 시작하기 전 첫 시간에 설문조사 진행함으로써 교육 진행 이전에 아동·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인식과 성교육 경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성인식과 성교육 경험을 알아보고 이후 강의 교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

이었다.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이나 학년별 구성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며, 성교육 신청을 한 센터의 해당 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이므로 학년 구성과 성별 비율에 있어 표집방법은 ‘무작위 표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표집된 자료의 성격상 이 설문조사만으로 한국 사회 아동·청소년의 성인식과 성교육 경험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아야 한다.

학년이 낮을수록 응답에 일관성이 없거나 미기입이 많았고, 설문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 그래서 3,4학년 설문조사를 분석에서 빼고 양적 자료 외 각 질문 내용과 관련된 질적 자료(활동지)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2) 질적 자료: 활동지

질적 자료로는 성교육 시간에 아이들이 작성한 활동지를 사용하였다.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성교육 수업에서 수거된 자료로 이후 작성된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재분류하였다.

성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 내용을 보면 이번 성교육을 받고 난 후 변화된 인식이나 태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동시에 교육을 받고 나서도 변화하지 않는 성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또 기존에 받았던 성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었는데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설문 문항과 관련된 내용의 활동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연구 대상의 성교육 경험과 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욕구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질적 자료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이미지, 오해와 편견 등 입장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수집 자료의 내용 구성

1) 설문 조사 항목

주된 조사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성교육 경험, 두 번째는 몸, 성, 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성적 실천, 세 번째는 성교육에 대한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개념 측정을 위한 주요 내용

개념 내용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수	보완자료로 사용한 활동지
1. 성교육 경험	- 성교육을 받아본 횟수 - 성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3	활동지 전체
2. (1) 몸 - 자기 몸에 대한 인식	- 2차 성장에 따른 몸의 변화에 대한 자기 느낌 - 외모, 몸매에 대한 관심 - 다이어트 경험 유무, 다이어트를 하게 된 이유	7	- (초저) 내 몸에게 편지 쓰기 - (초고,중고등) 외모지상주의 관련 영상교육 후 진행하는 활동지
2. (2) 성 - 성인식과 성적 자기결정권 - 성욕구와 성적 실천	- 성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경로 - 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 성적자기결정권: 스킨십이나 연애 등 성적 실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리커트 5점 척도) → 이 중 두 개의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원치않는 성적 행동 거절”이라는 변수를, 네 개의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라는 변수를 만들 - 포르노를 접해본 경험 유무와 접근 경로	10	- (초고) 성에 대한 느낌 - (중,고등) 성관계시 준비해야 할 것
2. (3) 성폭력	- 성폭력 경험 - 성폭력에 대한 생각 (리커트 5점 척도) → 다섯 개의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성폭력 이해”라는 변수를 만들	7	- 성폭력 피해자(정아)에게 편지쓰기
2. (4) 성평등	-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 - 성역할 고정관념 정도 (리커트 5점 척도)	7	-
3. 성교육에 대한 욕구와 바람	- 성교육 시간에 배우고 싶은 내용 (3순위까지 선택)	1	성교육 마지막 시간에 쓴 소감문

2) 자료 분석에 사용한 활동지

4회차 성교육 각 파트별로 활동지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으며, 초등부 1,2,3학년/ 초등부 4,5,6학년/ 중·고등부로 나누어 교육하기 때문에 활동지 내용이 각 집단별로 그 수준에 맞게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1회차 몸 파트에서는 아이들이 몸에 대한 자기 인식을 돌아보고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과 대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회차 성 파트에서는 성에 대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아이들의 편견, 잘못된 지식, 활동지 내용에 대한 주변 아이들의 반응 등을 파

악할 수 있었다. 3회차는 성폭력 O,X 퀴즈를 풀면서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폭력 피해자와 공감하기 위한 ‘정아에게 편지쓰기’ 활동지를 보면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성폭력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자기 경험, 타 기관에서 배웠던 성폭력 예방 교육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4회차에서는 차이, 차별 개념을 구분하도록 도우면서 성에서의 차이와 차별에 대해 교육한다. 이 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학년별 활동지 내용 구성

회차	초등 1,2,3	초등 4,5,6	중, 고등부
1회차 몸	소중한 내 몸에게 편지쓰기 → 몸에 대한 인식 바꾸기, 생식기에 대한 인식 전환	영상 교육을 통해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안 찾기	
2회차 성	좋은 느낌의 접촉과 나쁜 느낌의 접촉 그림그리기 → 자기 느낌과 기분에 대해 알아보기	그림카드를 보고 성에 대한 느낌 쓰기 → 성에 대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3회차 성폭력		-	성관계시 필요한 것 → 타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
4회차 성평등	동화책을 보고 성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기		영상을 보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보기
	-	차이와 차별 구분하기→ 성차별과 성평등 인식 테스트	

(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통합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인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비교, 상관관계 등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비교는 성별(여, 남)에 따른 차이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학년간 표집 양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년별 집단 비교를 하는 분석은 실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양적 자료를 분석하면서 나온 결과에 대해 좀 더 근거가 필요하거나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질적 자료를 근거로 보충하였다.

3. 분석결과

(1)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성교육 경험

<표 4>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⁶⁾ 성교육 빈도수가 많아지기 시작하여 중학교 초반까지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차분석의 결과 학년별 성교육 경험의 차이는 유의미한($p<0.05$)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대상 수가 많았던 초등 5학년, 6학년의 경우를 보면 이미 성교육을 4회 이상 받았다는 비율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다. 성교육은 이 두 학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 고등학생들이 받은 성교육 횟수와 비교했을 때 과거에 비해 성교육 횟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성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교차분석)

		Grade									전체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1회	빈도 (전체%)	0 (0.0)	9 (2.6)	15 (4.4)	7 (2.1)	4 (1.2)	3 (0.9)	1 (0.3)	0 (0.0)	0 (0.0)	39 11.4%
2~3회	빈도 (전체%)	3 (0.9)	22 (6.5)	28 (8.2)	26 (7.6)	15 (4.4)	15 (4.4)	7 (2.1)	0 (0.0)	0 (0.0)	116 34.0%
4회이상	빈도 (전체%)	0 (0.0)	9 (2.6)	32 (9.4)	53 (15.5)	15 (4.4)	18 (5.3)	12 (3.5)	4 (1.2)	1 (0.3)	144 42.2%
전혀 받지 못했다	빈도 (전체%)	4 (1.2)	17 (5.0)	12 (3.5)	6 (1.8)	2 (0.6)	0 (0.0)	1 (0.3)	0 (0.0)	0 (0.0)	42 12.3%
전체	빈도 전체%	7 2.1%	57 16.7%	87 25.5%	92 27.0%	36 10.6%	36 10.6%	21 6.2%	4 1.2%	1 .3%	341 100.0%

$\chi^2=413.186$, $df=36$, $p<0.05$

이번 설문조사, 활동지, 또는 학부모나 센터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게 된 사실은 학생들이 받은 성교육 내용이 2차 성징과 임신, 출산 등 생물학적 성 지식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성교육은 학교 보건교사에 의해,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 보건교사나 경찰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성교육을 기획·진행하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서울지원단과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의 성교육지원사업 말고도 이전에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타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6)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전부 통계를 냈다.

이렇게 반복적인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하였다. 5학년 이상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172명중 61.9%를 차지하였다. 그 중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성폭력 예방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 51.7%, 몸의 변화에 대해 알게 되어서가 21.5%, 성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서가 20.3% 순으로 나왔다. 위 결과를 보았을 때 최근 아동성폭력 사건이 언론에서 부각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성교육 경험 외에도 성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다른 경로가 있는지도 질문하였다.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를 보면 성교육을 통해서 성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응답이 1위로 55.8%를 차지하였다. 그 외 친구와의 대화가 11.9%를 차지하였다. (기타, 복수응답은 19.4%, 인터넷 3.6%)

과거와 달리 이제 성교육은 성별 구분 없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이 되었으며, 아이들 또한 성교육을 통해 내용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성에 관한 지식 대부분을 성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교육 강의를 주관하는 기관과 강사의 성에 대한 입장,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학생들이 ‘성’에 대해 갖게 되는 가치관에 큰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몸과 성에 대한 고민을 누구와 주로 나누는지를 질문하였다. 2차 성징으로 인한 몸의 변화에 대한 반응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러한 몸의 변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부모님이 나 친척이 42.6%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비율로 ‘의논하지 않는다’가 42.2%를 차지했다.

성에 대한 고민을 누구와 의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모님이 23.7%, 동성친구가 8.6% 순으로 나왔고 “의논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51.8%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절반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몸의 변화나 성에 대해 고민을 나누거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없다는 점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아동·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성 인식을 구축해가고 있거나 그 외 또래 문화를 통해서 성에 대해 알아가고, 상호 인정을 통해 성적 실천의 정도를 선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몸의 변화나 성에 대한 고민을 부모와 상의한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른들의 성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와 상의한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소결>

이미 성교육은 상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교육 양만큼이나 질적으로 그 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교육은 연령별로 그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교육 내용이 학년에 상관없이 똑같다면 교육 효과를 보기 어렵다.

(2) 각 영역별 성인식

1) 몸에 대한 인식

앞서 본 2차 성징에 따른 몸의 변화에 대한 느낌을 성별에 따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여학생과 남학생의 반응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는 몸의 변화에 대해 주로 아무런 느낌이 없다거나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표5>를 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비교적 혼란스러움이나 부정적 느낌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성별 차이는 유의미한($p<0.05$) 것으로 나왔다.

표 5> 청소년기 변화하는 몸에 대한 느낌(교차분석)

		Sex		전체
		여자	남자	
어른이 되는 것 같아 기쁘다	빈도	12	19	31
	전체%	4.4%	7.0%	11.5%
혼란스럽다	빈도	27	18	45
	전체%	10.0%	6.7%	16.7%
아무런 느낌도 없다	빈도	68	89	157
	전체%	25.2%	33.0%	58.1%
부끄럽다	빈도	13	2	15
	전체%	4.8%	.7%	5.6%
불쾌하다	빈도	10	12	22
	전체%	3.7%	4.4%	8.1%
전체	빈도	130	140	270
	전체%	48.1%	51.9%	100.0%

$$\chi^2=14.087 \text{ df}=4, p<0.05$$

그러므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모 가꾸기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 평상시 외모와 몸매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한 결과는 표6>과 같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평균 2에서 3 사이의 응답이 나왔기 때문에 외모와 몸매에 신경을 쓰는 편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p<0.05$) 것으로 나왔

으므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좀 더 외모와 몸매에 신경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학생이라고 해서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표 6> 외모와 몸매에 신경을 쓰는 정도(독립표본 t검정)

Sex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여자	132	2.36	0.926	270.160	-4.143*
남자	142	2.86	1.082		

* $p<0.05$

외모 가꾸기의 구체적인 실천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그 다음으로 다이어트 관련 질문을 하였다. 다이어트는 여성의 외모가꾸기 경향을 보여주며 그것이 성역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한설아, 2000). 성별에 따라 다이어트 경험 유무를 알아보고, 다이어트를 했다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먼저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보면 성별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다이어트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교차분석)

		Sex		전체
		여자	남자	
살이 찌면 다이어트는 당연히 해야 한다	빈도	51	23	74
	전체%	18.4%	8.3%	26.7%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빈도	40	47	87
	전체%	14.4%	17.0%	31.4%
다이어트는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빈도	11	8	19
	전체%	4.0%	2.9%	6.9%
생각해 본 적 없다	빈도	30	67	97
	전체%	10.8%	24.2%	35.0%
전체	빈도	132	145	277
	전체%	47.7%	52.3%	100.0%

$\chi^2=25.190$ $df=3$, $p<0.05$

다이어트와 관련된 생각을 성별 교차분석을 해보면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한($p<0.05$) 것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두 집단 사이에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은 18.4%가 ‘살이 찌면 다이어트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었으며,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14.4%이었다. 다이어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학생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남학생들은 24.2%가 다이어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 이유는 몸매 관리보다는 건강관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다이어트를 해 보았다는 학생보다는 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더 많았으며,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학생(전체 21.7%)은 남학생(전체 13%)보다 그 비율이 두 배 정도 더 많았다. 다이어트를 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도 성별간 차이가 있음($p<0.05$)을 알 수 있었다.

표 8> 다이어트를 하게 된 동기 (교차분석)

		Sex		전체
		여자	남자	
똥똥하다는 친구들의 놀림	빈도	3	3	6
	전체%	3.1%	3.1%	6.3%
가족들의 권유로	빈도	4	2	6
	전체%	4.2%	2.1%	6.3%
<u>날씬해지고 싶어서</u>	빈도	32	11	43
	전체%	<u>33.3%</u>	<u>11.5%</u>	44.8%
다이어트는 자기 관리라고 생각해서	빈도	16	10	26
	전체%	16.7%	10.4%	27.1%
건강 때문에	빈도	5	10	15
	전체%	5.2%	10.4%	15.6%
전체	빈도	60	36	96
	전체%	62.5%	37.5%	100.0%

$\chi^2=8.505$ df=4, $p<0.05$

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를 보면 두 성별 다 모두 “날씬해지고 싶어서”가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체 비율로 보면 여학생이 좀 더 뚜렷하게 이러한 이유로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다이어트를 자기 관리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여학생은 건강, 가족의 권유, 주위의 놀림 순으로 남학생은 건강, 주위의 놀림, 가족들의 권유 순으로 꼽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타의보다는 자의에 의해 스스로 다이어트를 선택하며 그 이유가 몸매 가꾸기를 위해서임을 볼 수 있다.

<소결>

아동·청소년의 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들이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기 부정 또는 자존감 저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한설아, 2000; Bordo, 2003).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섭식장애(거식증, 폭식증), 성형중독은 이러한 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가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여성다움이라는 사회적 규범이 몸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에 다른 요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대 여성은 이러한 외모 가꾸기 영향에 민감한 것⁷⁾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성교육에서 이러한 자기 몸 인식 전환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성인식과 성적 실천

설문지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들의 성인식과 실제 성적 실천 간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2011년에 진행되었던 성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 실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아동·청소년에게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손잡기까지 가능하다'는 응답이 56.7%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키스까지 18.4%, 3위는 '절대 어떤 스킨십도 안 된다'로 15.2%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대체로 미성년자가 직접적인 성적 표현과 행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인식은 활동지에서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성적 행동(취미활동, 손잡기, 포옹, 키스, 자위, 노인의 성, 동성애)들을 나타낸 그림을 보여주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에 대한 그림을 고르라고 했을 때에도 주로 대화를 나누고 있거나 두 사람이 손잡고 있는 그림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 그림을 선택한 이유에는 '건전해서', '야하지 않아서'라고 답변한다. 자위나 포옹하는 장면, 키스, 성관계 장면 등에 대해서는 '야하다', '청소년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고 썼다. 간혹 자위, 키스, 성관계 그림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고른 이유를 보면 '성=야한 것, 변태스러운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한다.

7) SBS 뉴스추적 437회 「열짱 소녀의 두 얼굴」 (2007. 8. 29)

그러나 이들이 실제 갖고 있는 성적욕구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위와 같은 인식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적욕구를 느끼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리커드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자신의 성적욕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나 성적자기결정권이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 <표9>를 보면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자신의 성적 욕구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며,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9> 성인식과 성적자기결정권 (독립표본 t검정)

	Sex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1) 누군가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할 때 거절하지 못한다	여자	132	4.57	0.840	266.976	2.261*
	남자	145	4.30	1.101		
(2) 야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싶어지면 죄의식을 느낀다	여자	128	3.27	1.555	268	0.889
	남자	142	3.10	1.531		
(3) 나의 성적인 상상이나 성적인 행동이 비정상적인 것 같아 불안하고 힘들다	여자	129	3.83	1.335	271	1.546
	남자	144	3.58	1.293		
(4) 좋아하는 사람이 스킨십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들 것 같다	여자	131	3.84	1.208	274	2.222*
	남자	145	3.50	1.344		

* $p<0.05$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았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러한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성별 집단간 평균 비교를 해보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해 거절하는 것 (1), (4)에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미한($p<0.05$)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성적 욕구에 대한 느낌(2), (3)에 대해서는 성별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p<0.05$).

자신의 성적 욕구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이지도 않고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반면 본인에게 허용된 스킨십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두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위 네 가지 문항의 응답 수치를 모두 더해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최저 점수는 4점, 최고 점수는 20점이다.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은 14.9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킨십에 대한 인식은 평균은 2.12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아이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분절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모두 따로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디어에서 남녀 관계는 보통 이성애 중심, 이벤트적이고 소비 중심의 연애와 결혼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문화를 쉽게 접하게 되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표현은 더 이상 이상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다. 성교육 욕구와 관련한 질문에서 성교육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에 ‘평등하고 행복한 남녀관계⁸⁾’를 많이 선택한 것, 성에 관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본 이야기 주제들 중 ‘이상형(25.4%)’, ‘연애경험담(18.7%)’의 빈도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왔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이성적, ‘이상적’ 남녀 관계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러한 성적 욕구와 실제 현실에서의 성적 실천 여부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곤 한다. 상당수 아동·청소년들은 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가 있다는 규범을 내면화 하고 있다. ‘성’은 이성 파트너가 있는 성인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적 행동들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성욕구와 성인식 간의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적 실천에 대한 자기 죄책감은 커진다. 허용되지 않은 것과 자기 욕구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성욕구를 가진 존재로 존중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성적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인정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이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성적 실천에서의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까지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학생들과의 성 표 10> 포르노를 본 적이 있는가? (교차분석)

교육에서 연애 등 직접적인 성적 실천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 포르노에 대한 경험을 질문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적 실천과 성별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포르노를 적극적으로 찾고 유통, 소비하는 것은

		Sex		전체
		여자	남자	
있다	빈도	22	51	73
	전체%	8.0%	18.5%	26.4%
없다	빈도	110	93	203
	전체%	39.9%	33.7%	73.6%
전체	빈도	132	144	276
	전체%	47.8%	52.2%	100.0%

$\chi^2=12.446$ df=1, $p<0.05$

8) ‘평등하고 행복한 남녀관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성교육에서의 관심 분야와 주위 사람들과 성에 대해 나누어본 주제 등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상 ‘연애관계’로 보았다.

남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십대 남자아이들의 대표적인 성적 체험 역시 ‘포르노 보기’이다. 이들은 포르노를 통해 성에 대한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성적 환상을 만들어가고 자위와 같은 구체적인 성적 행동을 한다. 그러나 포르노를 본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문란(?)’ 하거나 폭력적인 성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엄기호,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포르노가 남성의 성 욕망을 중심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라 그 수용 정도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포르노와 접촉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였다.

포르노를 본 적 있냐는 질문에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포르노를 본 적이 있는 경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은 접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포르노가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p < 0.05$)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노에 어떻게 접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우연히 접하게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이 보여주면 본다’, ‘스스로 찾아서 본다’ 순서로 나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차분석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p < 0.05$) 나타났다.

최근 여자 아이들도 포르노를 접하게 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으며, 위 결과와 같이 포르노를 접하게 되는 경로 또한 성별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매체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으로 쉽게 접하게 될 수 있게 되면서 변화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스팸 문자 또는 스팸 메일로 무작위 발송되는 포르노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접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위 분석만으로는 포르노가 표 11> 포르노를 접하게 되는 경로 (교차분석)

아이들의 성적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어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포르노가 모든 아이들 성적 행동에 똑같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확실하다(엄기호, 2004). 포르노가 문제인 것은 그것이 성을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

		Sex		전체
		여자	남자	
우연히	빈도	13	26	39
	전체%	18.3%	36.6%	54.9%
스스로 찾아서 본다	빈도	2	11	13
	전체%	2.8%	15.5%	18.3%
누가 보여주면 본다	빈도	7	11	18
	전체%	9.9%	15.5%	25.4%
찾아서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준다	빈도	0	1	1
	전체%	0.0%	1.4%	1.4%
전체	빈도	22	49	71
	전체%	31.0%	69.0%	100.0%

$\chi^2 = 2.555$, $df = 3$, $p < 0.05$

보다는 대다수 그 내용이 남성 중심적, 성기 중심적, 폭력적인 성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르노를 본다고 해서 아이들의 성을 낙인찍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현실에서의 성적 실천과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할지 입장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결>

이상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성인식과 성적자기결정권, 그리고 포르노를 통해 본 성적 실천을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확인하고 관심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성적 행동에 도덕적인 잣대를 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이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거나 그러한 행동을 직접 실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성교육 바탕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안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도 구체적인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러한 실천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겠다.

3)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태도

성폭력 예방 교육이 강조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어떤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이 성폭력 경험과 성폭력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아동성폭력의 특징과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성폭력에 대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성폭력 경험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질문 하였다. 두 번째로는 성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12>, <표 13>과 같다.

표 12> 성폭력 경험 유무와 대처(빈도표)

	빈도	비율
있다	15	5.4
없다	261	94.6
합계	276	100.0

무응답 1명(4.0%)

표 13> 성폭력을 겪은 경우 이후 대처방법

	빈도	비율
그냥 참고 넘어갔다	5	33.3
주변 사람들(친구, 가족, 선생님등)에게 얘기했다	6	40.0
주변 사람들과 의논해서 해결했다	2	13.3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접 항의했다	2	13.3
합계	15	100.0

직접 성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성폭력을 겪은 이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40.0%)’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변 사람들과 의논해서 해결했다’는 응답은 13.0%가 나왔다. 그러나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도 33.3%로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성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가 직접 얘기하지 않는 이상 사건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성폭력 가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편 아동성폭력의 두 번째 특징은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앞 절에서 보았던 <표 9>의 문항 (1), (4) 응답 결과와 함께 비교 분석해 보자. 이 설문 결과를 보면 똑같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다 하더라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접촉은 좀 더 거절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상황에서 ‘나와 아는 사람이어서’또는 그 외 여러 이유로 스스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성폭력이 있을 경우 주변에 ‘도움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해서 리커트 5점 척도(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보통이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로 성폭력 이해 정도를 측정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전반적으로 평균이 3.5 이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 성폭력 이해 정도 (독립표본 t검정)

	Sex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1) 성폭력은 젊고 예쁜 여성에게만 일어날 것이다	여자	132	4.05	1.161	273.472	2.111*
	남자	145	3.73	1.376		
(2) 성폭력은 강하게 저항하면 불가능하다	여자	126	3.40	1.339	268	0.778
	남자	144	3.26	1.453		
(3) 좋아하는 마음에 강제로 한 스킨십은 봐줘야 한다	여자	132	4.60	.760	269.217	2.302*
	남자	145	4.36	.970		
(4)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도 어느 정도는 잘못이 있을 것이다	여자	132	3.83	1.169	274	-2.01
	남자	144	3.87	1.236		
(5) 성폭력이 일어나면 반드시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역코딩)	여자	131	4.12	1.277	271	0.247
	남자	142	4.08	1.241		

*p<0.05

이러한 결과는 활동지‘성폭력 O,X 퀴즈’를 진행할 때도 확인된다. 아이들이 이미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다른 기관에서도 받아서 대체로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지식 차원’에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 진행되는 ‘성폭력을 겪은 친구(정아)에게 편지쓰기’ 활동지에서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이전까지 받아온 성폭력 예방 교육의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아래 t검정에 의하면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 좀 더 낮은 평균을 보이는‘성폭력을 젊고 예쁜 여성에게만 일어날 것’이나 ‘좋아하는 마음에 강제로 한 스킨십은 봐줘야 한다’ 같은 경우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피해자 유발론’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킨십을 성폭력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활동지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2)번 문항에 대한 태도도 활동지를 살펴볼 수 있다. 성교육 진행시 상당히 많은 남자아이들이 ‘정아에게 편지쓰기’ 활동지에 ‘내가 가해자를 때려줄게’, ‘남자의 거기를 차버려!’, ‘소리를 지르면 돼’와 같은 글을 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이전까지 받아온 교육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여러 가지 성폭력 상황에 대한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한가’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대처교육이지 않았을까 예상된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자신의 남성성을 내세워 성폭력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학생에 비해 큰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상황에서 저항을 한 경우 52%는 성폭력과 신체폭력을 동시에, 그리고 10.6%는 심각한 정도의 신체폭력 겪었고, 단지 9.6%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통계(김태경, 2011)에 근거할 때 성폭력 상황별 대처교육이 정말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소결>

조사 결과를 보면 성폭력에 대한 이해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 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심층 분석해 보면 성폭력을 ‘지식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해서 ‘안돼요. 싫어요’라고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건강한 경계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원치 않는 성적 접촉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실제 성폭력 상황에서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성폭력을 이해하는데 있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유발할만한 옷차림이었기 때문에’등 ‘피해자 유발론’으로 아이들이 성폭력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 시 성폭력은 명백하게 가해자 잘못이며, 아동성폭력이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성평등 의식

성평등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하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이고 두 번째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한 6가지 문항이다. 먼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가 31%로 1위이지만 그 다음 응답인 “별로 상관없지만 친한 친구가 동성애자라고 하면 싫어질 것 같다”가 26%로 2위 동성애는 비정상이다가 23.1%로 3위를 차지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 혐오 경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리커드 5점 척도로 평균이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평균이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이다. 아래 결과에 따르면 성평등 의식은 대체로 보통인 것으로 나왔다. 성별간 평균 차이가 있는지, 즉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T 검정을 해본 결과는 문항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전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나 응답의 일관성을 포착할 수는 없었다.

표 15> 성역할 고정관념 (독립표본 t검정)

	Sex	N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데이트 비용은 주로 남자가 내야한다	여자	132	3.21	1.284	275	-2.273*
	남자	145	3.57	1.348		
여자는 능력보다 외모가 더 중요하다	여자	131	3.83	1.075	274	1.979*
	남자	145	3.56	1.207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여자	131	3.78	1.192	271.544	3.411*
	남자	144	3.24	1.410		
데이트를 할 때 스킨십은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여자	132	3.67	1.220	275	-1.022
	남자	145	3.82	1.165		
순결을 지키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	여자	130	3.14	1.334	273	-1.305
	남자	145	3.34	1.288		
남자와 여자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다르다	여자	131	3.63	1.344	274	1.817
	남자	145	3.32	1.409		

*p<0.05

성교육 4회차 시간에 성평등 내용과 관련 차이, 차별을 구분해보는 활동지 작성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을 놓고 그것이 성에 의한 차이인지, 성차별적인 내용인지 구분하는 것인데, 어떤 문항에서는 이해한 듯이 보이지만 또 다른 문항에서는 그것이 왜 ‘성차별’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접근보다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무엇이 성차별이고 성평등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성교육 욕구

성교육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를 3순위까지 응답한 결과를 전체 합쳐서 보면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성교육에서 배우고 싶은 분야 1위는 성폭력 예방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평등하고 행복한 남녀 관계가 2위, 성장기 몸의 변화가 3위였다. 4위는 여학생은 임신과 출산, 남학생은 성관계라고 응답하였다. 그 밖의 다른 항목은 성별에 따라 순위에 약간씩의 차이를 보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성에 대해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본 주제 중에서는 ‘이상형’, ‘연애 경험’이 높은 순위로 나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연애, 이성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아동성폭력이 부각된 것에 아이들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16> 성교육에서 배우고 싶은 것 (다중응답)

		Sex		합계
		여자	남자	
생식기의기능과구조	총계	74	103	177
	Sex 중%	7.2%	9.5%	
성관계	총계	126	④ 158	284
	Sex 중%	12.3%	14.5%	
자위	총계	18	52	70
	Sex 중%	1.8%	4.8%	
동성애	총계	40	100	140
	Sex 중%	3.9%	9.2%	
임신과출산	총계	④ 215	101	316
	Sex 중%	21.0%	9.3%	
(1위) 성폭력예방	총계	① 598	① 559	1157
	Sex 중%	58.5%	51.4%	
(3위) 성장기 몸의 변화	총계	③ 400	③ 360	760
	Sex 중%	39.1%	33.1%	
피임(임신예방)	총계	134	102	236
	Sex 중%	13.1%	9.4%	
(2위) 평등하고 행복한 남녀 관계	총계	② 422	② 403	825
	Sex 중%	41.3%	37.0%	
기타,무응답	총계	1039	1326	2365
	Sex 중%	101.7%	121.9%	
합계	총계	1022	1088	2110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자수 기준

4. 결론

이 연구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성인식과 성적 실천 양태, 그리고 성교육 경험과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성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와 성교

육시 썼던 활동지를 함께 분석한 결과와 그에 따른 성교육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성교육은 상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교육 양만큼이나 질적으로 그 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교육은 연령별로 각 시기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이것은 2010년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의 성교육 욕구 조사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성교육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① 성교육 전문가에 의한 교육의 필요성, ② 아동의 발달 정도, 성장 배경 등 아동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성교육, ③ 일회성 교육이 아닌 단계에 따른 점진적, 반복 교육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몸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이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다움’이라는 사회적 규범이 몸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기 부정 또는 자존감 저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성교육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아이들이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렇다고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 실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확인하고 관심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성적 행동에 도덕적인 잣대를 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에 대해 자기 입장을 세우고 올바른 관점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성교육 바탕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안정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도 구체적인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러한 실천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겠다.

넷째, 조사 결과를 보면 성폭력에 대한 이해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 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심층 분석해 보면 성폭력을 ‘지식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 방향은 상황별 ‘대처 교육’이 아닌 ‘예방 교육’으로 가야 한다. 성폭력은 명백하게 가해자 잘못이며, 아동성폭력이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9) 서울여성희 성평등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 센터장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다섯째, 성평등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접근보다는 아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무엇이 성차별이고 성평등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후 교육에 있어 ‘연애’부분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성교육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만나다보면 센터 내에서 아이들이 연애를 하는 문제로 고민하며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한 욕구 또한 이 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의 평등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연애 관계는 개인들이 맺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인간관계 중 일부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서울소재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의 성인식과 성교육 경험에 대해 양적 자료뿐만 아니라 질적 자료까지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순 인식 조사에 그치지 않고 성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성인식과 성적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교육 방향과 보완되어야 할 내용까지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설문조사 표집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학년 비율이나 지역 비율을 맞추지 않았다는 점,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질문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이후 연구에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민가영. 2003. 「가출, 지금 거리에 '소녀'는 없다」. 서울: 우리교육.
- 변혜정, and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2010.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 10대와 어른, 섹슈얼리티로 소통하다」. 파주: 동녘.
- 엄기호. 2004. 「포르노 All boys do it!」. 서울: 우리교육.
- 한설아. 2000. 「다이어트의 성정치」. 서울: 책세상.
- Bordo, Susan, and 박오복. 2003.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 페미니즘, 서구문화, 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 논문

- 박혜림. 2006. "1990년대 중반 이후 성교육 담론에 나타난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윤인경, 박정윤, and 이수정. 2009.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1(4):127-44.
- 이종민, and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청소년학회. 8(1):117-42.
- 정하성. 2006. "연구논문 : 청소년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청소년학회. 13(5):187-206.

3. 영상자료

2007. 8. 29. "얼짱 소녀의 두 얼굴". SBS [뉴스추적] 437회.

4. 미출간 자료

- 김태경. 2011. 아동성폭력의 영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

주 제
발 표

아동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 방향

김미영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교육사업팀장

[발제] 지역아동센터 아동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포럼

아동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 방향

김미영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교육사업팀장

아동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의 방향

현재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의 대상과 횟수를 지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1회의 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교육들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들에서 시작된 고민을 가지고 성교육 강사단 교육을 시작했다.

몸과 성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인지정도와 필요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세분화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렇게 세분화된 교육내용을 만들어 내다보니 한 번의 교육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어 몸, 성, 성폭력예방교육, 성평등 모두 4회차로 나누어 집중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여성주의 관점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없는지, 아이들에게 두려움이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단어들은 없는지, 매달 평가하고 1년에 2회 강사단을 대상으로 집중교육과 토론을 통해 한 줄 한 줄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올바른 성교육의 방향을 잡아 나갔다.

이렇게 앞으로의 성교육 방향을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주제발표1>과 <주제발표2>의 연구결과와 성과이며, 아낌없는 지역아동센터 서울지원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이들과 만남을 토대로, 성평등교육센터에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연구한 성교육 매뉴얼을 기초로 아동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처음 지역아동센터를 배정받아 강의를 가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적극적이시지만, 빠른 시간에 적당히 가려서 교육해 주길 요청해 오는 곳도 있다. 아이들 또한 성교육은 재미없고, 짜증나고 이미 학교에서 교육 받아 다 아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까지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전적으로 영상에만 의존하는 교육을 받아온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교육을 하다보면 ‘다 알고 있다는 아이들의 말은 뭐지?’ 할 정도로 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한 몸과 성에 대한 차별적인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인식은 강사단도 놀랄 정도로 깊었다.

1차시에 진행되는 몸교육은 생식기의 명칭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강한 부정의 소리를 지르거나 그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겨우 진정시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여자 아이들이 남자의 생식기를 설명할 때 외면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의 생식기를 설명할 때 외면한다. 부끄럽고 징그럽다고 한다. 어쩌다 생식기의 명칭과 역할들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해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 교육(생식기 또는 성기의 명칭과 기능에 대한 교육)은 이런 아이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준비되어야 한다. 생식기 교육의 목표인 ‘본인의 몸에 대한 변화를 잘 알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식기에 대한 터부를 깨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실제 아이들이 생식기의 이름을 놀림말로 부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생식기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놀림말로 부르는 것은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생긴 것이기도 하다. 본인의 몸이지만 성과 관련된 부분은 몰라도 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식기가 단지 임신과 출산을 위한 기관이 아니며, 우리 몸의 일부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처럼 우리의 몸이 성장을 할 때 생식기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놀리는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마다 생식기의 모양도 다르고 발달하는 시기도 각각 다르며 몸의 모습 또한 다양하다는 것과

다양하고 소중한 우리의 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행복은 외모순이 아니다

하지만 생식기 교육만으로는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지역아동센터의 중등부 교육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이미 화장을 하고 오거나, 수업 도중에 계속 화장을 고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외모에 대한 친구들과의 수다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어른들의 대화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다이어트나 옷, 화장품 등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남학생들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여학생들의 관심과 실천은 놀라울 정도로 높으며, 그들의 정보력은 어른들을 넘어서기도 한다. 이런 십대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 한때의 궁금증으로 흘려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너희는 아직 어리니 나중에 하라거나, 화장하지 않은 순수한 모습이 예쁘다’는 등의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왜일까? 왜 아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뻐지려 외모에 집중하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어쩔 수 없는 일로 바라보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단속하거나 그냥 두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몸에 대한 교육은 바로 이런 순간에 필요하다. 자신의 몸은 본인 그 자체이며,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은 자존감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다이어트 비법, 화장품과 유행하는 화장법, 패션 스타일, 성형미인 등, 자고 나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외모에 대한 정보와 그것들을 부추기는 현재의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시대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달라져왔다. 통통한 것이 아름답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남성과 비슷한 톰보이 형태의 몸매가 각광받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의 기준만이 아름답다고 정해서 그것에 집착하게 하고 심지어는 일상을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외모가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변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준이 어느 집단에 의해 만들어 지는지,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은 누구인지, 왜 그런 현상이 특히 여성들에게 더 많이 강요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잘못된 외모지상주의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심각성과 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악역향을 미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바로 보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몸교육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이 되어야 한다.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예쁘거나 날씬하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못지않게 내 몸에 대한 편견 또한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외모지상주의는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교육은 타인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외모에 관심이 많아 외모가 상대를 평가하는데 모든 기준이 되어 버린 아이들에게 왜 모두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이러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외모지상주의는 그 어떤 전염병보다 퍼지는 속도나 심각성이 크다고 한다.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교사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좀 더 예뻐지기 위해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기도 하고,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성형중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한번한 일엔 만족하거나 감사하게 못하고 더 좋은것을 추구하기 때문이.

☞ 외모지상주의란 외모를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모가 예쁜지 많은사람들은 예쁜사람들이 멋있다고 또 인모가 예쁜지 많은사람은 예쁜사람의 말을듣게 되어서 어쩌면 인모 신분이 신경질도 있다

☞ 외모지상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못생긴사람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 예쁜사람들은 사람을 위한 일만하고 다른사람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1차시 교육과정 마지막으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려와는 다르게 많은 아이들이 왜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모가 권력이 되고, 차별이 되고, 신분의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형중독도 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자신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성교육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면서 성교육 강사단은 대부분 비슷한 별명을 하나씩 얻는다. ‘야동 선생님’, ‘변태 선생님’. 아마도 1차시에 보여주었던 생식기의 모양과 다양한 사람들의 그림들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과 교육에 참여하는 태도에서는 변화가 시작된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듣지 않는 척 하면서도 착하게(?) 잘 듣고 있음을 선생님에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성교육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어렵다. ‘성’하면 모두 이상하고 야하고 징그럽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려울 정도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예전에 비해 성교육이 의무교육화 되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교육이 오히려 아이들을 성적으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용이 축소되기도 하고, 아이들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놀림을 당하지는 않을지 서로 경계하며 자신의 욕구와 궁금함을 들어내기 어려워한다. ‘성이 자연스럽고 행복한 것’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성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과거에 비해 쏟아지는 정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 요즘, 호기심과 터부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 속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그들만의 ‘성 정보’를 공유한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것 감추고 교육하는 생물학적인 성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할 수도, 올바른 성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기도 어렵다. 더 이상 떠도는 동영상과 음담패설로 자신들의 성을 알아가게 해서도 안 된다. 아이들의 궁금함을 인정하고,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건전이 아니라 행복을 기준으로

이전의 성교육이 ‘건전한 성(좋은 성)’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행복한 성, 폭력적인 성으로의 개념변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성(보통 결혼과 임신, 출산 연인사이 정도)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폭력적이 된다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 나쁜 성이라고 생각하는 자위나 동성애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성적욕구가 생길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이다. 성적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한 성적인 선택은 행복한 성이고, 상대방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침범하는 행위는 폭력적인 성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 제대로 된 지식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른들의 잘못된 성지식이 아이들에게는 성에 대한 염려나 성을 터부시 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의할 때 있었던 일이다.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아버지가 잘못하면 음경의 모양이 기형이 되어서 나중에 남자구실 못한다며 자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실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성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속설들이 안타깝게도 성적인 실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장애물로 발동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중학교 여학생이 ‘어머니가 결혼 전 성관계를 많이 하면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했단다. 그 아이는 ‘정말이냐’며 걱정스레 질문을 해 왔다.

어른들이 참 비겁하다 싶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았으면’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협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태도는 성에 대해 아무런 교육을 해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남성들에 대해 과도한 성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지만,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 것을 억지로 참기만 하라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순결교육이 가능하겠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과거 순결을 잃었을 때 스스로를 단죄하라고 딸아이에게 주었던 은장도만이 순결교육은 아니다. 여전히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무지하길 바라는 순결주의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른들의 생각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 성을 터부시 한다거나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적인 실천을 선택할 때 적극적이지 못하고 남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교육에서는 우리사회의 고정관념을 깨는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에 대한 이중 잣대와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순결주의의 문제

점, 성적욕구는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성적욕구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남자는 원래 그래, 여자는 원래 그래’라는 생각이 자칫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 또한 이미 성적인 존재이며 성에서 주체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궁금한 것 또한 당연한 것이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행복한 성을 당당하게 즐길 수 있도록,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람, 곤충, 피임약	사람은 기본 곤충과 피임약은 우리몸에 중요해서
가르친, 향수, 시간	임념제와 나에게 빠지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사 여부	성관계한다고 하나, 상대 의 결정 없이는 가능 제적 으로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 한다.
위생 관리	위생 안 신경 쓰면 건강에 나빠서

중등 교육 시에 아이들에게 성관계 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필요하다고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어떤 어른들은 이런 활동지를 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지만, 아이들은 진지하다. 때론 술이나 여자, 돈과 같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단어가 나올 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어른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성에 대해 유쾌하게 풀어나간다.

성폭력예방교육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부터

아동성폭력 사례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어른들과 아이들까지도 공포에 떨게 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린다. 그럴 때마다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한 듯 성폭력예방교육이 유행처럼 휩쓸고 지나간다.

언젠가 집으로 법무부에서 온 우편물이 한통 배달되었다. 법하면 덜컥 가슴부터 내려앉는 서민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긴장하며 봉투를 뜯어보니 그 속에서 나온 종이 한 장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그 후에 편치 않은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딸아이는 친구들이 통금시간이 생겨서 일찍 집에 가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남자들은 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저녁에 외출을 불안해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입구에는 범인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며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마다 신경 쓰이고 겁난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었다.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에 왜 그것을 붙여 놓았는지는 의문이다. 얼굴을 익혀 접근처에서 보면 도망가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하라고 하는 의도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성폭력예방교육 시간에는 유난히 집중도가 높은 것을 느낀다.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안을 만들 때 단어 하나, 사례 하나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칫 교육이 협박이 될까봐, 어른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 줄까봐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도 두렵고 떨린다.

이것은 교육을 하는 강사들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 또한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종 받는다.

- 여학생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수업을 듣는다던지, 앞이 많이 파인 옷을 입고 바닥에서 누워 있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아이들은 애정이 부족해서인지 다 큰 여자아이들이 남자선생님들에게 자꾸 안기려고 한다.” 등 혹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 남학생의 경우 : 주로 가해자가 될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 대한 것

이런 선생님들의 고충에 먼저 고민하고 준비한 성평등교육센터 교육의 방향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특히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으

로 성과 세상에 대한 공포를 키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성폭력예방교육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교육의 방향을 전환했다. 첫째, 대치교육에서 예방교육으로 둘째, 장난인지 폭력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계교육으로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의 피해에 노출되었을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빠른 대처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그 방향이다.

예방교육의 핵심은 건강한 경계교육¹⁰⁾

예방교육은 아이들 스스로의 주체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성폭력예방교육이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스스로 대처를 하라고 가르치는 교육이었다면, 예방교육의 핵심은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대치교육은 [주제발표1]에서 자세히 다루었듯 별로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주어 도움요청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방교육에서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모나 교사, 모든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사소한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어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인권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원치 않는 접촉이나 원치 않는 행동을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언제든지 작은 일(폭력으로 노출되어 있을 경우 빨리 감지하여 미리 예방하거나 대처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도 말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해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교육은 건강한 경계교육으로,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짱구를 보면 개구쟁이 짱구가 친구나 선생님, 부모에게 항상 장난스러운 행동을 많이 해서 주변에 핀잔을 사기도하고 웃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그냥 웃고 넘어가기엔 과한 장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친구가 화장실에 갔을 때 훑쳐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놀림거리로 만든다 던지, 선생님이 여

10) 아동 성폭력의 이해와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 이현혜, 2011년도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1

행가는 곳에 따라가고 싶어 지하철 안에서 옷을 벗어 선생님이 하여금 난감하게 하여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이다. 이런 행동들은 한때의 짓궂은 장난 정도로 넘어가기 쉽다. 하지만 성적인 행동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무기로 사용한다면 성폭력이 될 수 있으며, 아이들의 가벼운 장난쯤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행동들 또한 자칫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본인의 의사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스킨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사례는 아이들의 주변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족과의 접촉)라도 원치 않는 접촉을 거절할 수 있는 건강한 경계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도움요청하기의 중요성이다. 성교육과 건강한 경계교육, 일상 속에서 자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차별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피해자가 죄책감에 숨기려 할 수도 있고, 피해자도 잘못이 있을 거라는 피해자유발론 의식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아 피해를 겪었다는 죄책감과 어차피 이야기를 해도 별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도움을 요청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게 일반적인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는 것과,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어른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른들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알고 있어서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앞서 사례로 이야기한 여자아이들의 행동(치마길기, 스킨십 등)이 걱정꺼리가 되는 것은 그런 행동들이 자칫 스스로 성폭력의 피해로 이어 질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며, 이것은 피해자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생각 즉, 피해자유발론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아이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이것은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은 어른들이다. 어른들이 먼저 교육받

고,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서 피해야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교육은 힘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망만 안겨줄 수도 있다. 어른들을 믿고 건강하게 일상을 살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는 몫은 우리 사회 전체이자 어른들의 몫이다.

정아에게!

정아야,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피해자이지
 너도 처음부터 알수가 없었을 거고 머리가 리
 물렸을지라도 수도 있어. 이것을 아서서 잘못된거야.
 그래도 남자들이랑 따라한 안고 그 때의 일이었
 어도 그 사람이 잘못했지. 남자들이랑이 한 것도 아니
 잖아. 앞으로 그런일이 생기면 안돼요! 정아!
 응 해... 슬프겠지만 너 자신을 아길 차례.

정아에게!

정아야,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겠
 구나. 나는 아직 그 일을 안 당했지
 만 미래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그리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잊혀
 지지 않는 것지만, 그래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니까

영상으로 만들어진 성폭력 사례를 보고 아이들로 하여금 주인공에게 편지쓰기를 한다.
 피해자와 공감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걱정과, 위로에 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피해자에게 앞
 으로 조심하라는 당부와 가해자와 맞서서 싸우지 못함을 탓하는 글도 있다. 대처교육이 아이들에게 성폭력에 대
 해 어떤 생각을 갖게 했는지, 피해자유발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나타내주는 사례이다.

답은 성평등 교육에 있다

어렸을 때에는 라면이 귀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나도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비싸다며 막내인 남동생에게만 끓여 주는 거예요. 라면을 맛있게 먹는 동생이 얼마나 알밸는지.... 여러분들이 듣기엔 별거 가지고 다 그린다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다섯 명의 누나들에게는 국수를 주고, 남동생에게는 라면을 끓여준 것이 가난했던 시절에 엄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들과 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차별받았던 선생님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에이~ 진짜요? 라면이 얼마나 한다고, 쌤 엄마 진짜 치사한데요.”

“그러게요, 치사하네요. 하필이면 먹는 거 가지고.”

요즘은 형제가 많지 않기도 하고, 예전보다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져서인지 과거에 가족 안에서 발생했던 차별을 이야기하면 옛날이야기 듣는 듯 신기해한다. 또한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아이 때부터, 파랑색은 남자 색, 분홍색은 여자 색, 남자는 힘이 세야하고 씩씩해야 하며, 여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에 익숙해서인지 성평등 수업 역시 쉽지 않다. 차이와 차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모양이다. 그리고 차별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다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교육시간에 성차별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여기저기서 ‘어 그래요? 그럼 나도 차별 받았네’라는 반응들이 쏟아진다. 너무도 오랫동안 차이로만 알고 있었던 당연한 것들이 차별이라고 생각은 못했다며 차별이 아닌 것이 거의 없음에 놀라기도 한다.

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생식기의 지식만으로는 행복한 성이 될 수 없으며, 성폭력의 대처만으로는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모든 교육은 성평등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찾았다.

우리 몸의 일부인 생식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확한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 것은 기존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오는 차별이며, 여성의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특히 여성에게 요구되는 외모에 대한 기준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성차별이다. 또한 성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여성에게는 순결과 절제를 강요하고, 남성에게는 과도한 성욕을 요구하는 성에 대한 이중 잣대, 이 모든 것들 역시 차별이다. 성폭력 또한 성욕을 참지 못하는 몇 명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니라 성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차별은 우리가 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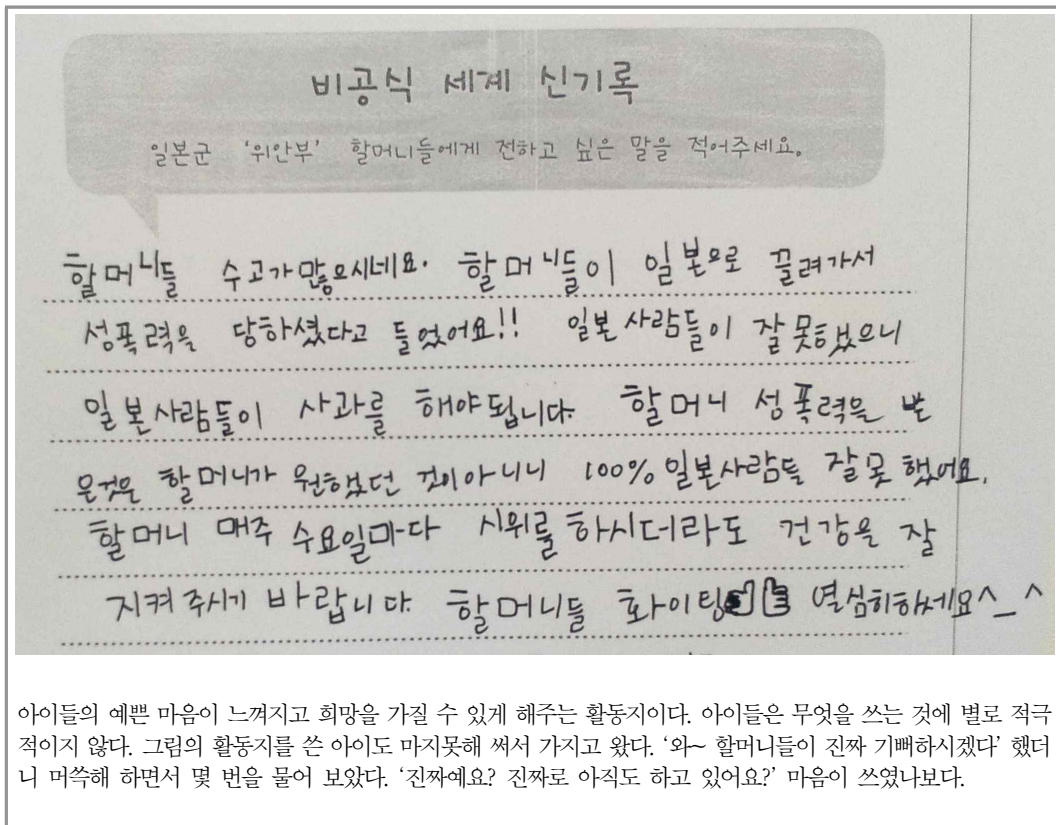
나기도 훨씬 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차별로 인식하기 어렵지만 성차별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 역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성차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역할이다. 성역할이란 여자에게는 여자의 역할이 있고, 남자에게는 남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생김새도 원래의 남자다운, 여자다운 모습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즉 성에 따라서 하나의 역할, 하나의 모습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성차별을 차이로 오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역할이란 성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육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이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힘들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평등을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교육을 통해 인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여자가, 남자가’라는 말을 한다.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남자가’라는 단어 속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숨어있는지,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바꾸어 나가는 실천들이 왜 중요한지가 이야기되지 않으면 성차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예로, 현재에도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현장이 우리 옆에 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식민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분들이 세상 속으로 나와 억울함을 호소할 때, 사회가 외면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성이 뻔뻔스럽게 세상으로 나와 자신들의 목 소리를 높이는 게 불편하다고 냉대하던 우리 사회 성차별의 불편한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인식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별이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000회가 넘는 수요시위를 통해 사회에 알려져 왔듯이 말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많은 부분에서 약자에게 차별이 발생함에도 왜 침묵을 강요하는지,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지역아동센터에서, 혹은 다른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의무가 되었다. 학교에서도 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부모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까지 시행하고 있고, 아동성폭력예방교육을 부모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보탬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동성폭력 사건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교육의 양보다 교육의 질을 확인하고, 올바른 관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생식기 또는 법에 대한 상식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이 오히려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어른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지, 성차별적인 고정관

넘은 건드리지 않은 채 차별을 차이로 인식하게 하는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를 평가하고 진단해 보아야 한다.

성평등교육센터에서 제시하는 교육 방향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성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이 확산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첨부된 교육사례토론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을 하며 강사들이 경험했던 사례들을 모은 것이다. 그 글들을 통해 성교육의 중심내용과 함께, 왜 성평등교육센터에서 성교육을 1회가 아니라 4회차로 나누어 진행하는 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토론에는 [주제발표3]에서 다루지 않았던 <연애교육 사례 - 연애도 공부야 필요해!>가 포함되었다. 그 글은 아이들이 관심이 많고 하고 싶어 하는 연애가 어떻게 성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행동들에 고정관념이 들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 연인 관계에서도 강조되는 성역할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한다. 연애는 어른 흉내도 아니며, 유행도 아니라 나의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10대들에 대한 연애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점으로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소개하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의 성이 행복한 성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섹슈얼리티가 유쾌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여자가, 남자가’라는 대화에서 사용되는 단어들부터 의식적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사 례 토 론

1

사
례
토
론

내 몸 알고 사랑하기

조민욱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 강사

[발제] 몸교육

내 몸 알고 사랑하기

조민옥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 강사

내 몸 알고 사랑하기

나에게는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있다. 아이 담임선생님과 상담시간에 딸아이의 그림과 글 등 수업 활동 작품을 보여주었다. 집에서도 항상 봐오던 것들이라 그냥 넘어가려는데 선생님 말씀이 아이들은 글씨체에서 한글 ‘ㅇ’을 자기 얼굴이라 생각하고 그리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의 그림과 글에는 유독 ‘ㅇ’과 사람얼굴이 크고 동그랗게 그려져 있었다. 이는 아이가 본인 얼굴이 크고 동그랗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아이들의 작품보다 유독 크고 동그랗게 그린 ‘ㅇ’을 보니 당황스러웠다. 내 앞에서는 한 번도 자기 얼굴이 어떻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던 아이다.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슬쩍 물어보았다.

“너는 니 얼굴이 크다고 생각해?”

“응! 엄마, 내 얼굴은 너무 동그랗고 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괜찮아, 크면 어땠고 작으면 어때~ 엄마 눈에는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하구만!”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지만 이런 저런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다. 주변 어른들이나 또래 친구들이 ‘니 얼굴은 너무 동그래’라는 말을 흘렸을 수도 있고, 방송을 통해 동그랗고 큰 얼굴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배웠을 수도 있다.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알게 모르게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내면화해서 본인 얼굴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엄마에게 표현은커녕 외모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다.

우리가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성교육 첫 시간을 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다~ 알아요!!’를 외치는 아이들, 정말 알고 있을까?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몸이 변해요. 감정의 변화가 막 온데요~”라는 대답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대부분 몸이 어떻게, 왜 변하는지는 대답하지 못한다. 성교육을 매년 몇 차례씩 받는다며 “다 알아요”를 외치는 아이들의 현실은 아래와 같다.

- 월경은 피 아니에요?
- 거기서 노란게 나왔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병원가야해요?
- 또래 친구들에 비해 발육이 빠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인 브래지어를 안 하고 와요. 센터에 남자아이들도 있고 남자선생님도 계신데 브래지어를 하고 오라고 해도 안 하네요
- 저는 한 번도 커진 적(발기) 없는데요~

아이들은 어떤 성교육을 받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진짜 성교육일까? 돌아보면 나도 자라면서 지금 아이들이 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의 성교육을 받아왔다. 남자 친구들은 체육을 하고 여자 친구들만 모여서 받는 성교육, 궁금한 것은 대답해주지 않고 몸의 기능과 명칭만을 배우는 그런 성교육 말이다.

“난소에서 한 달에 한번 난자가 나팔관을 통해 자궁 안으로 나오는데 이때 정자를 만나면 임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난자는 자궁에 안착하지 못하고 태아를 위해 모아놔던 영양분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게 바로 월경이야. 여자의 몸은 임신할 몸이니 항상 조심해야해.”

이처럼 나는 성교육 시간에 ‘실패한 임신=월경’ 이라고 배웠다. 그러니 매달 하는 월경을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생리대를 구입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사용 후 피가 보이는 생리대를 휴지에 뽁뽁 싸 버리는 것도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월경을 했고, 그 기간 중 임신한 횟수는 2번이다. 나는 이 2

번을 위해 20여 년간 임신에 실패한 월경을 했던 말인가? 앞으로는 임신 계획이 없는데도 몇 십 년을 ‘실패한 임신=월경’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경은 실패한 임신의 결과가 아니다. 물론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성숙된 난자가 나팔관을 통해 자궁으로 배출되고, 이때 정자를 만나면 임신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난자는 정자를 만나기 위해서만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내 몸에 세포가 생기고 죽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위를 보호하기 위해 위벽이 두터워졌다가 어느 순간 다시 얇아지고 하는 것처럼 월경은 자연스러운 몸의 순환과정이다. 월경은 내 몸 안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좋은 기능이기도 하다. 월경에는 여러 노폐물과 영양분, 약간의 혈액이 섞여있어서 피처럼 보이는 것이지 피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4회차 성교육을 진행하는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 친해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싫어하는 성교육 이다보니 그냥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참고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그런데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생식기의 명칭과 사춘기 몸의 변화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난 쉬는 시간에 4학년 여자가 “거기서 노란게 나와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한건가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예요?” 라고 수줍게 물어왔다. 혼자서 며칠은 끔찍 거렸을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 “아마 냉이라고 하는 것 일거야. 우리 몸이 변화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마 곧 월경을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을 이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런 것이라고 생각해. 만약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생각하면 엄마에게 말해서 같이 산부인과를 가보는 것도 좋아. 산부인과에 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감기에 걸려서 내과에 가서 진료를 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란다. 몸이 아프고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라고 알려주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2회차 수업을 시작하기 전 슬쩍 물어보았더니 아이는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랑 병원 갔는데 괜찮은 거래요”라며 밝게 웃었다.

아이들의 몸은 2차 성장을 겪으며 빠르게 변화한다. 변화의 시기는 ‘자, 시작!’이러면서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는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어떤 이는 너무 늦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몸의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변화의 시기도 각자의 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몸의 변화 중 유독 여자아이들의 가슴 발달에 신경을 쓰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 가슴이 나오면 눈에 잘 띄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인지 아이들의 브래지어 착용에 대해 민감해 하신다. 오히려 아이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말이다. 브래지어는 가슴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픔을 느껴서 감싸주고 보호하는 용도로 착용을 권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가슴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기 위해서, 가슴의 유두가 보이는 것은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착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가슴이 발달하게 되면 별 의심 없이 브래지어 착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브래지어 착용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브래지어와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sbs스페셜- 브래지어를 하고 계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 브래지어 착용 팀과 무착용 팀으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다. 실험 3개월 후 브래지어를 장시간 착용한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생률이 훨씬 높아지며, 오히려 브래지어 무착용 팀 여성들의 가슴이 균형감을 찾았고 혈액 순환도 훨씬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가슴이 발달했기 때문에 브래지어를 꼭 해야 한다거나 내 몸의 일부인 가슴이 부끄러워서 감춰야하는 용도로 브래지어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브래지어를 하는 경우에도 집에 들어왔을 때는 벗고 있는 것이 몸의 건강을 위해 좋을 것이다.

나에게는 결혼 전까지 누구도 브래지어를 벗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수년간 브래지어를 24시간 착용했고, 답답해도 참아야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 몸의 일부인 가슴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한 지금은 브래지어를 벗었고, 너무나 편안하다. 내 몸이 편안하니 다른 일에 집중도 높아지고 행복하다.

아이들도 브래지어를 처음 하게 되다 보면 답답해서 하기 싫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른들의 시선으로 가슴을 성적인 부분으로만 보면서 브래지어를 강요한다면 이 또한 아이들의 불편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춘기 몸의 변화 중 남자아이들에게는 몽정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사춘기에 새롭게 정자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남자 아이들의 경우, 정자가 언제 얼마나 나오는 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잠을 자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자가 나오는 현상인 몽정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해준다.

몽정과 함께 음경골절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음경이 찢어져 발기되는 순간이 있어요. 음경의 근육조직에 피가 몰려 찢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발기되었다고 죄책감을 갖고 그것을 숨기려고 음경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면 근육 조직이 찢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음경골절 이라고 해요. 그러니 발기 되었을 때에 창피하다고 음경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혹시 골절이 되었다 생각되면 바로 비뇨기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비뇨기과를 가는 것 또한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의 얼굴은 순간 놀란 표정으로 바뀐다.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전 커진 적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라고 이야기한다. 경험이 없다고 마치 짠 듯 대답을 하는 아이들에게 여전히 몽정이나 발기가 숨겨야하는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해 아쉽다.

몸에 대한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렇듯 아이들은 변화하는 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도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 몸의 다른 기관들처럼 생식기에도 정확한 명칭이 있으나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비속어나 은어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성교육 첫 시간에 진행되는 몸교육에서는 생식기의 명칭을 말하는 것도, 몸의 변화에 대한 궁금함도 결코 부끄럽거나 변태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게 해준다. 내 자신의 몸과 이성의 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의 몸은 소중하니까!

예쁜 아이가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은 싫어해요
-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싶고 나는 얼짱이 되고 싶다.
- 더 예뻐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예뻐를 받고 싶어 한다.
-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 성형수술을 할수록 예뻐진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시선을 느끼게 된다.
- 얼굴이 못생겨지거나 얼굴에 뽀루지가 생기거나 하면 친구, 동생들에게 놀림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예쁘고 내가 더 못생겨지면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 할 때 외모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외모만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서열화하는 것을 외모지상주의라고 말한다. 외모지상주의는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아이들도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다. 아이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좋은 외모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으며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한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개그콘서트만 보더라도 외모를 개그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개그콘서트 속 코너 ‘네 가지’를 보면 ‘왜 촌스러운 남자, 키 작은 남자, 똥똥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라면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소재로 많은 웃음을 준다. 그나마 남자 개그맨들은 키가 작거나 똥똥한 외모에 당당한 편이지만, 똥똥하거나 못생겼다고 놀림 받는 개그우먼들은 항상 본인을 비하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방송들을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나와 타인의 모습에 관심이 부쩍 생겨나는 시기에 외모에 대한 확실적인 기준을 갖게 되면 나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남자는 키가 크고 적당한 근육질 몸매에 배에는 초콜릿 복근이 있어야 하고, 여자는 비쩍 마른 몸에 쌍꺼풀이 있는 큰 눈, 꿀벅지를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외모지상주의를 설명하면서 지인의 사례를 이야기해준다. 그 분은 코에 점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위 어른들이 ‘코에 점만 없으면 더 예뻐 텐데..커서 코에 점을 빼라’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학창시절 내내 너무 신경 쓰여 점이 안 보이는 쪽으로 사람들을 보려고 하고 항상 얼굴을 숙이고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코에 점을 빼려고 하니 주변에서 이제는 코에 있는 점이 미인점이니 빼지 말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의 궁금증은 그래서 코에 점을 뺐나 안 뺐나 하는 것에만 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것이며, 그렇게 구성된 미의 기준은 시대, 문화, 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세상이 강요하는 미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라지만 이미 외모지상주의를 내면화한 아이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도 화장을 하고 있는 아이, 친구에게 똥똥하다며 놀리는 아이, 못생겼다며 무시하는 아이, 그래도 예쁜 게 좋은 거라며 예뻐야 사랑받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아이들.

그렇다면 이런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요즘은 TV속 남자 연예인의 영향으로 남자 아이들도 외모에 부쩍 신경을 많이 쓰고 가꿔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기준이 훨씬 강력해서 마른 몸에 대한 환상

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이어트를 일상화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 딸아이가 요즘 식욕이 부쩍 늘었는지 많이 먹는 편이라 밥을 많이 주었더니 살도 통통하게 오르고 키도 부쩍 컸다. 아이의 성장기에 많은 영양분이 필요해서 잘 먹었던 것인데 친정엄마는 아이가 살찔까봐 걱정을 하시면서 밥을 조금만 주라고 하신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에게 먹고 싶은 만큼 맘껏 먹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는 친정엄마의 걱정을 모른척하고 있다. 그러나 내 주위에는 자기 딸아이가 많이 먹으면 똥똥해질까봐 걱정을 하면서 음식 조절을 시키는 부모들도 여럿 있다.

“많이 먹으면 똥똥해져! 이것만 먹어.”

그들은 아이가 똥똥하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예뻐야 인기가 많으니까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계속 비교를 당하면서 관리를 받는 아이가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갖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히려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자존감도 낮아지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21세기의 전족



그림출처 : EBS '전족이 아름다운 이유' 중

몸교육 시간 활동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영상을 한 편 보고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전족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영상은 천 년 동안 이어져온 중국 여성의 미의 기준이었던 전족에 관한 영상이다. 천년동안 내려온 가장 예쁜 미인의 기준,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

전족은 중국에서 ‘여성의 작은 발이 아름답다’는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네 발가락의 뼈를 휘게 만들었던 풍습이다. 아장아장 걸어야 하고, 달릴 수도, 제대로 힘을 쓸 수도 없는, 똥똥똥 거리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며 남자들은 즐거워했다고 한다. 작은 발이 예쁜 여자의 기준이 되자 귀족부터 평민층까지 너도 나도 작은 발을 갖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했다고 한다. 영상을 보고 나면 아이들은 ‘저게 이뻐요?’, ‘중국에서 안 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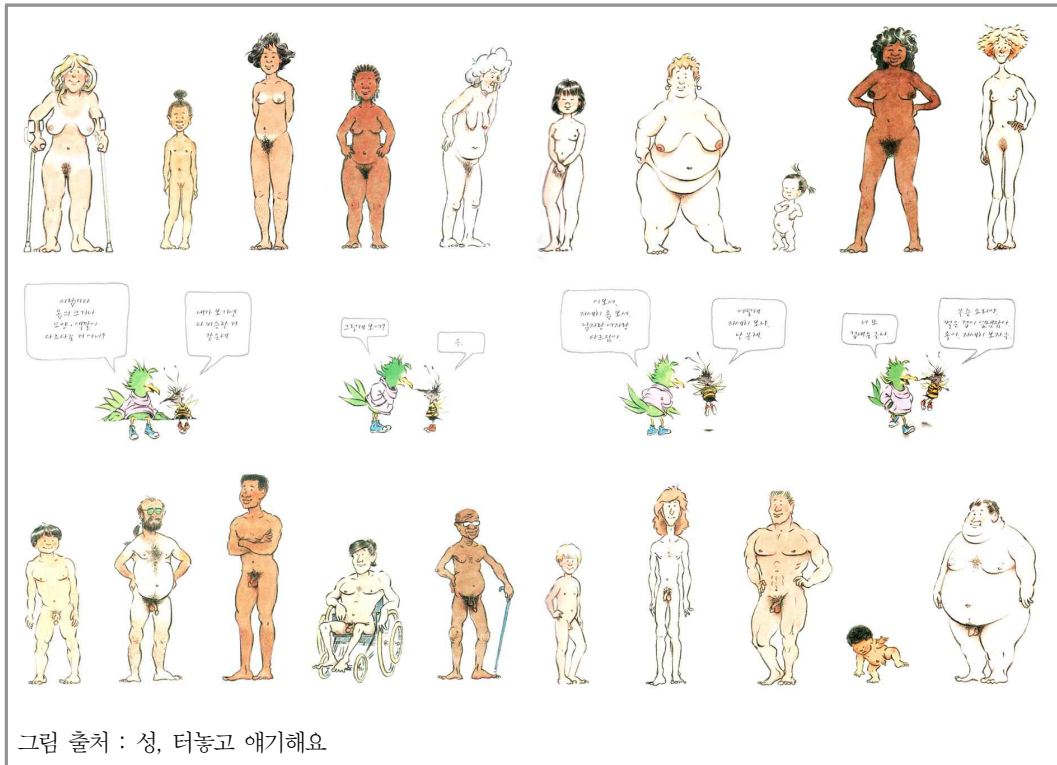
나서 다행이에요’, ‘왜 여자만 해요?’, ‘지금도 해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시대는 달라도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정해놓고, 억지로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의 외모 지향을 단순히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 욕망이나 건강관리의 차원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기준이 바뀌는 아름다움, 강요되는 아름다움에 부응하기 위해 오랜 세월동안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가진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외모를 가꾸는데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아마 몇 백 년 후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다이어트, 성형 열풍을 본다면 전족 영상을 보며 아이들이 보였던 반응을 똑같이 보일지도 모른다.

“아니 저런 이상한 몸을 만들기 위해 저런 노력을 하다니, 도대체 왜?”

또한 여성의 외모에 대한 통제는 폭력적이고 차별적이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여성은 자기 관리를 못한 여성으로 낙인찍히며 온갖 차별과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비쩍 마른 몸에 큰 가슴, 아기 같은 동안 얼굴에 섹시함을 갖춰야 하는 현대 사회의 여성들에게, 몸은 삶을 구속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몸에 대한 통제는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도 진행되고 있다.

선생님 안 똥똥해요~

우리의 몸은 다양하다. 마른 몸, 살찐 몸, 아이 몸, 어른 몸, 장애인 몸, 비장애인 몸, 흑인 몸, 백인 몸 등 피부색이나 생김에 따라, 사는 곳에 따라 다르며, 다른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의 명칭과 기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자기 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곧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몸을 설명하기 위해 위의 그림을 아이들과 함께 본다. 역시나 “까아악”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숙인다. 그래도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다른 것처럼 몸도 다 다양한 것이라는 나의 설명은 계속된다. “선생님처럼 뚱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른 몸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 안 뚱뚱해요”라며 나를 위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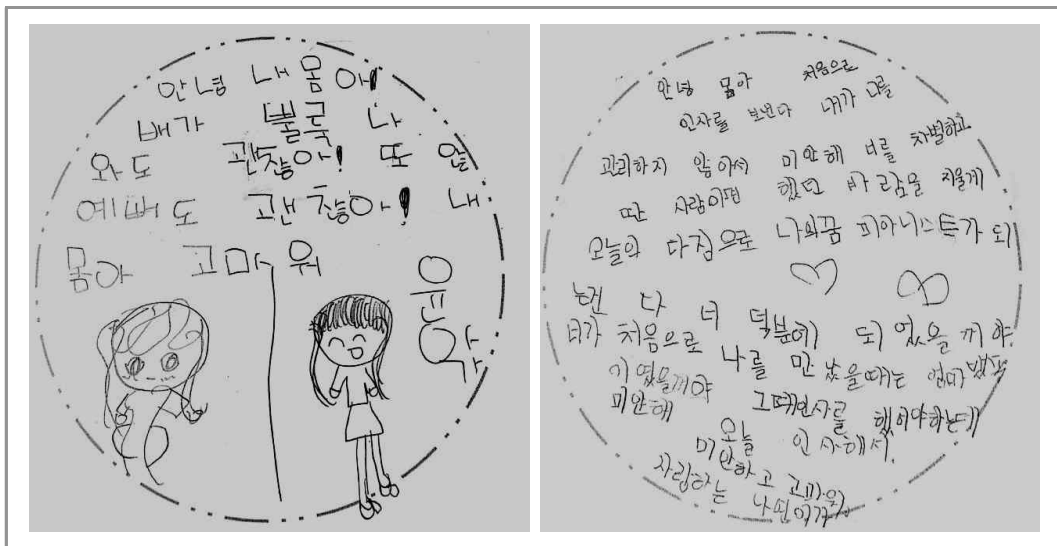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미의 기준으로 보자면 나는 자기관리에 실패한 뚱뚱한 여자이다. 그러나 ‘뚱뚱한 몸이 위로를 받을 몸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 웃음도 나오고 씩씩해졌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난 나의 몸을 사랑하고, 미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기 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한다.

어느 날 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맞은편에 고도비만이라 여겨질 정도의 뚱뚱한 남자가 지나갔다. “우와~대박! 엄마보다 더 뚱뚱해”라는 아이의 말에 아차 싶었다. 요새는 아이들 스스로도 외모 관리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면서 엄마가 안 꾸미거나 뚱뚱하면

창피해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내 딸도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의 몸은 다양하고 그것으로 좋은 것, 나쁜 것을 나누면 안 되는 거라고.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내 배를 만지며 “두부배~좋아 좋아”라고 한다.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통해 미의 기준의 내면화한다. 다양한 서로의 몸을 긍정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몸만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 인식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모만 중요하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성격이나 능력, 장점 등은 평가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준다.

내 몸아 고마워~!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갈 즈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는 [내 몸에 편지쓰기] 활동지를 진행한다. 내 몸의 소중함 대해 생각하면서 내 몸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함이다. 교육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춘기 몸의 변화는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반드시

‘여자다운 몸’, ‘남자다운 몸’으로 변화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성별에 따라 각각 특수한 변화도 진행되지만 시기와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가슴이 작은 여성도 있고, 허리가 잘록한 남성도 있지 않은가. 아이들이 자신의 몸에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아이들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몸이 변화하는 시기, 속도,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몸을 차별과 놀림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내 몸아! 고마워!”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과 함께 수업을 마칠 때면 아이들의 삶에 긍정의 씨앗 하나를 심어준 것 같아 뿌듯하다. 자신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을 응원한다.

2

사
례
토
론

순결교육이 아닌 성적자기결정권 교육으로

김황수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 강사

[발제] 성교육

순결교육이 아닌 성적자기결정권 교육으로

김황수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 강사

순결교육이 아닌 성적자기결정권 교육으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고학년 아동들이 성에 대한 호기심을 보일 때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아동학습만화 전집 중에서 유독 ‘사춘기와 성’을 다룬 한권만 금방 너털너털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웅기종기 모여 성교육 책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낯 뜨거워서 자리를 피하게 된다는 교사도 있었다.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문제의 성교육 책’을 아이들이 볼 수 없도록 감춰놓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성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여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성교육 교사가 방문을 하면 아이들은 ‘야동 선생님’이니 ‘변태 선생님’이니 놀리기도 하고, “성교육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망하고 싫어요!”라며 대놓고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춘기에 들어서면 많은 아이들이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을 터부시하는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다. 성에 대한 터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통념, 즉 ‘성’은 은밀하고 야한 것, 위험한 것, 최대한 멀리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아이들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통념’부터 점검해야 한다. 아이들은 ‘백지’가 아니라, 이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위에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알려줘야 할까?

“우리 (센터)아이들은 아직 순진해서 성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 너무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백지상태인데 괜히 이야기해서 더 자극이 되면 안되잖아요.”

센터 교사들과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몰랐던 것을 굳이 알게 해서 자극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로 ‘백지상태’일까? 결코 아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미디어를 통해서나 또래 관계를 통해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초등학교 3~4학년에 소위 ‘야동’을 접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기 또래 문화 속에서 신체접촉(성폭력을 포함한)은 ‘놀이’의 일종이기도 하다.

한편, 어른들의 생각과 반대로 아이들은 스스로 성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말한다. 성교육을 하러 들어가면 조숙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남자 아이들은 벌써 뒤에서 킬 킬거리며, 어떻게 말하나 보자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다 알고 있는 걸까?

중학생·고등학생 아이들이 섞여있는 성교육 수업에서 겪은 일이다. 한 남자아이가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쑥스러워서 도저히 물어보지 못하겠다고 혼자 몸을 배배 꼬았다. 정 그러면 쪽지에 써서 쉬는 시간에 따로 제출하라고 하니 종이를 노려보며 한참을 고민하는 아이. 그러다가 수업 내용 중에 “자위를 많이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고나, 건강을 해친다고나 하는 말은 잘못된 거야. 자위를 하고 안하고는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이상한 게 아니야”라고 설명을 하니 그때서야 이마를 탁 치고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위를 많이 하면 키가 줄어든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냐는 질문이었다.

다 알고 있다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오가는 일은 흔하다. 피임의 경우에도, 질외사정(정액을 질 바깥으로 배출함)을 피임법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성관계를 맺기 직전에 피임약을 한두알 먹으면 임신이 안되는 줄 알거나,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임신이 되는 줄 알거나... 아이들 사이에서 잘못 통용되는 성 정보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게다.

성교육이 의무교육화 되고 있는 점은 훌륭하지만 그 내용이 성폭력 대처나 임신·출산에 관련된 생물학적 지식에 편중된다면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성적 상황에 대

해서 어떤 판단도, 대비도 할 수가 없다. 올바른 성교육 이루어져야 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기준을 세울 수 있고, 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성은 자연스러운 것



위의 그림들은 성에 관련된 다양한 모습이 그려진 그림카드 중 일부이다. 그림카드에는 각각 손잡기, 가벼운 포옹, 뺨에 뽀뽀하기, 하이파이브 하기, 키스, 성관계와 임신/출산, 자위 등에 관련된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15장의 그림카드를 아이들 앞에 펼쳐놓고, 그 중에서 성에 가장 가까운 느낌의 그림을 골라 그 느낌을 말해보도록 한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고르는 그림은 키스나 성관계와 같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의 모습이 아니라 손잡기, 하이파이브, 가벼운 포옹이 담긴 그림이다. 그 그림을 고른 이유나 느낌

에 대해 물어보면 아이들은 “다정해 보여서”, “친근해서/편안해서”, “가장 나아보여서”라고 답한다. 달리 말해 가장 ‘건전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고른 것이다.

열 명에 한 명 정도 성관계에 관련된 그림을 고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결혼이나 임신/출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아주 드물게 ‘자위’를 고르는 용감한 아이가 나타나지만 그 아이는 주변 아이들에게 ‘변태’라며 놀림을 당하기 일쑤다.

성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성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성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카드를 통한 성 느낌 나누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은 건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요구한다고 추측되는 ‘정답’을 고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활동 사례를 살펴보자.

성교육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을 두 장씩 나눠준 뒤 한 장에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성’, 한 장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쁜 성’을 적어보라고 한다. 많은 아이들은 결혼, 임신/출산 정도를 ‘좋은 성’에 적는다. 가끔 연애나 뽀뽀를 좋은 성으로 고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이 연애, 데이트, 키스, 자위, 동성애, 아이/노인의 성 등 결혼에 관계되지 않은 대부분의 성이나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있는 성 실천을 ‘나쁜 성’으로 고른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건전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아이들이 결혼이나 임신출산에 관련되지 않은 성행동 (키스, 자위, 동성애, 아이나 노인의 성 등)에 대해 ‘나쁜 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순결주의’ 즉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모든 성행동을 터부시하는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성에 관련된 그림카드를 고를 때 아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성에서 멀어 보이는 것’, ‘가장 덜 야해 보이는 것’을 고른다. 이런 아이들의 심리 속에는 자신이 성에 무관심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아이들의 순결주의 사고와 실제로 존재하는 성에 대한 호기심과 실천, 그 사이의 간극을 결국 죄책감으로 메우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죄책감은 건강한 성적 욕구를 음지에서 은밀하게 풀도록 하고, 실제 성 경험에서 어떤 갈등에 부딪혔을 때 적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한다.

성교육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내용은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에 대한 욕구

는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와 같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한편, 사람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다른 것처럼 성에 대한 욕구와 느낌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성욕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없기도 하다. 어떤 성별의 사람에게 성적 매력을 느낄 것인지도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 이처럼 ‘좋은 성(건전한 성), 나쁜 성’이 있는게 아니라 성에 대한 다양한 선택에 대해 존중한다면 모든 성은 ‘행복한 성’이 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남성의 성욕은 충동적, 여성의 성욕은 분위기? -성교육에서의 성차별적 사고

[성교육 교재 사례 1 : A 교재 사례]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의 차이

- 남자 : 남자는 야한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가 성기 속에 가득 차 발기하게 됩니다. 발기했을 때 계속 자극을 받으면 사정이 일어나는데, 이 때 아주 짜릿한 쾌감을 경험하게 되지요. 남자가 야한 사진을 자꾸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 여자 : 여자도 남자처럼 야한 걸 즐깁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에 비해 시각적인 자극보다는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성적 욕구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는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성교육 학습만화의 한 부분이다. 남성의 성은 충동적이고 신체활동이나 쾌감 중심이지만 여성의 성은 충동적이지 않고 감정이나 분위기에 좌우된다는 설명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교재에는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 중 여자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월경, 임신, 출산, 연애 감정, 성폭력 대처, 낙태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반면 남자아이들에게는 몽정, 성적 흥분(발기), 자위, 음란물, 성매매, 성병 등에 대해 설명한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성에게는 직접적인 성행동을 전제한 성교육을 진행하고, 여성에게는 ‘성에 대한 욕구’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 대한 ‘대처법’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자는 성욕이 많아야 남자답고, 여자는 성욕이 없어야 여자답다고 인식되는 성(sexuality)에 대한 성차별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고, 신체적·감정적으로 표현된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성교육 교재 사례 2 : B 교재 사례]

- 여자 몸의 안과 밖 (일부 발췌)

음핵은 외음부 안쪽에 있는 콩알만한 작은 피부둔덕입니다. 음핵을 만지거나 비비면 여자의 몸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짜릿하고 몸이 달아오르기도 하는데, 이런 기분을 성적으로 흥분한다고 합니다.

- 남자 몸의 안과 밖 (일부 발췌)

음경의 끝 부분은 모양이 거북 머리와 비슷해서 귀두라고 부릅니다. 음경을 만지거나 건드리면 남자의 몸은 짜릿하고 따뜻해지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랑 나누기

- (중략)신체 접촉이 시작되면 남녀 모두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자는 가슴이 팽팽하게 긴장되기 시작하며 질이 축축해지고, 음핵도 단단해집니다. 남자의 음경도 단단해져서 꼳꼳하게 일어섭니다.

위의 교재는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몸의 변화와 성적욕구를 비롯해 성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 성교육 교재다. 위 사례를 보면 성적 흥분이 남성의 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몸에서도 성적 흥분과 관련된 신체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성에 대한 욕구는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다르게 '요구'되고 '구성'되어 온 것이다.

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성교육 강사 활동을 하면서 학창시절에 내가 받아왔던 성교육을 돌아보게 됐다. 중·고등학교 때 낙태에 관련된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성병의 종류와 특징들을 외우거나, 거들을 입고 다니면 성폭력을 피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제도교육과 별개로 실질적인 정보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 학교 추천도서 목록에 있었던 어린이용 성교육 만화책과, 백과사전 중 '인체의 신비' 편을 펼쳐놓고 사람의 벗은 몸을 몰래 몰래 훑쳐보며 얻었다. 이후에는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일본 순정만화, 언니 오빠들이 읽는 소설책과 잡지의 '야한' 장면을 통해 성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됐다.

그러나 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했던 것은 20대에 들어서였고, 내가 알고 있던 성에 대한 정보나 환상은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과 어떻게 소통하고 무엇을 협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

르쳐준 적이 없었다. 원하지 않는 성적 상황에 처했을 때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 라거나, 성에 관련된 실천 이후에 무언가 죄책감이 들 때, “걱정마,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준비된 성관계의 센스
성관계를 할 때 필요한 것, 꼭 준비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 향수, 가그린, 콘돔, 피임약, 와인, 돈, 게임기, 시간 등

순위	필요한 것	고른 이유는?
1순위	피임약	자신이 원치 않게 임신이 되면 ~~서로의 인생이 망가질수도 있고~~ ~~가 되니깐!~~ ~~필요한대~~ ~~않을~~ ~~까!~~
2순위	동영상	동영상에 나쁘게 ~~연연~~ ~~연연~~ ~~연연~~
3순위	돈	돈을 ~~내면~~ ~~서로에게~~ ~~부채를~~ ~~해줄수~~ ~~있나~~ ~~간~~

성교육은 이렇게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최근 피임 교육이 늘어나고 있지만 단순히 바나나에 콘돔을 씌워보는 활동을 해본다고 해서 실제로 피임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관계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으면 피임을 준비할 수 없다. 말하자면 피임의 준비는 성관계를 준비하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성관계 시 필요한 물건’을 생각해 보면서 성관계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고, 상대방과 협상하는 훈련을 해본다. 분위기를 잡기 위한 와인이나 향수, 가그린(구강청결제)를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안정된)장소’,

‘(내가 원하는)시간’, ‘사랑하는 상대방’ 이라고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리고 콘돔이나 피임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이유에다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라고 구체적으로 적기도 한다. ‘존중’, ‘서로간의 의사’라고 적기도 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언제, 누구와, 어떻게 성에 대한 실천을 할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위’는 나쁘거나 불건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성적 실천이다. 자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 놀리거나 스스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로, 어떤 성별의 사람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지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성애’는 좋은 것이고 ‘동성애’는 나쁜 것이라는 편견도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란물’에 대한 관점도 세워야 한다. 음란물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주입하거나, ‘봐라·보지 말라’라고 결정해 주기보다 음란물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음란물은 단순히 ‘벗은 몸’을 보여주거나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사람의 벗은 몸과 성을 표현하는데 그걸 음란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음란물은 돈을 벌기 위해 오직 성적 자극에만 집중하면서 성에 대한 모습을 성차별적으로, 폭력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모습을 가능하다고 착각하게 한다. 또한 현재까지 음란물을 주로 구매하는 사람은 남성이기 때문에, 음란물에서는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채울 수 있도록 여성의 몸이 극단적으로 성적 대상화·도구화 된다. 뿐만 아니라 몰카와 같이 불법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거나 등장인물에게 실제로 성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혹시나 음란물을 접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해야 한다.

‘회피’하지 않는 성교육만이 성을 ‘해피’하게 만든다

‘순결주의’는 결혼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성을 ‘나쁜 성’이라고 인식하도록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성교육은 ‘순결교육’인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성병 교육으로, 또는 낙태 교육으로 다양하게 변화해왔지만 결론은 ‘그러니까 어린 너희들은 성관계 하지마’라는 내용이다. 피임 교육이 늘어나긴 했지만 거기서도 결론은 ‘임신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혹은 최대한 미루는)거야!’인 경우가 많다. 이런 성에 대한 ‘공포 교육’이 계속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성의 주체로 서기 어려울 것이다.

성에 대해 금기시·터부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원치 않는 성적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본인이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채로 수동적으로 끌려가기 쉽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성에 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문화가 있어, 남성은 성욕이 많아야 하고 여성은 성욕이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성욕을 요구받는 남성들은 ‘성은 본능’이라 믿으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폭력적인 성행동을 하게 되고, 성에 대해 침묵을 강요받는 여성들은 성폭력에 노출되어도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성교육은 이제 ‘순결 교육’이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 교육’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성에 대한 욕구를 가진 ‘성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성에 대한 행동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교육해야 한다.

가장 좋은 성교육은, 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성교육이라는 말이 있다. ‘회피’하지 않는 성교육만이 성을 ‘해피’하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성 터놓고 얘기해요 (로비 H. 해리스 글, 마이클 엠벌리 그림, 주은희 편역, 다섯수레)

WHY? - 사춘기와 성 (이복영 글·만화, 예림당)

EBS 지식채널e <아이의 사생활Ⅱ - 1부 사춘기>

아동성폭력 문제,
해결의 시작은 건강한
경계교육이다

김유리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 강사

[발제]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성폭력 문제, 해결의 시작은 건강한 경제교육¹¹⁾이다

김유리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 강사

장난일까? 폭력일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서는 이론 중심의 강의보다는 실제 사례를 강의에 쓰면 더욱 효과적이다. 아동대상이든 학부모 대상이든 성폭력예방 교육할 때 꼭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아래 사례는 장난일까? 폭력일까?

어느날 돌봄교실에서 전화가 왔다. 초등학교 1학년인 철수에게 휴대폰이 생겼는데 새로운 놀이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놀이의 정체는 또래들의 생식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서로 보여주고 자기들 끼리 웃고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본 돌봄 선생님이 경악을 하면서 철수엄마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작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아동성폭력 사건을 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반 우려반으로 전화를 하신 것이다. 그 날 저녁 철수엄마는 철수에게 돌봄교실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인지, 사실이면 왜 그런 것인지 물어 보았다고 한다. 아이의 반응은 “사실이야! 하지만 장난으로 그런거야! 처음이란 말이야!” 였다고 한다.

아이의 이 같은 반응에서 부모가 만약 “짜식!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하며 가벼운 장난으로 넘긴다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장난으로 여기고, 이런 종류의 놀이를 계속 할 것이다. 철수엄마는 아이에게 정확하게 장난과 폭력을 설명해 주었다. 물론 과도하게 죄책감을 갖도록 반응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생식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

11) 아동 성폭력의 이해와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향, 이현혜, 2011년도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1

고 놀리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놀이들이 장난이 아님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것은 필요하다.

내가 철수의 나이였을 때 아이들이 했던 놀이들이 생각난다. 치마 들추기, 화장실 훑쳐보기, 간혹 교실에서 자위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어렸을 때는 이런 놀이들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불편하고 수치심도 느꼈지만 누구에게도 이런 불편한 감정을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는 장난일 수 있는 문제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함과 수치심으로 다가온다. 그저 장난일 수 있는 놀이들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장난과 폭력의 경계를 어릴 때부터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교육이다.

엄마가 싫다고 해도 자꾸 음경을 만져요!

[또래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사례]

만 애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오토바이(생식기 사이에 다리를 넣고 떠는 행동)를 하고 서로 생식기로 장난을 쳐요. 보기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자기들은 재밌으니까 간섭하지 말래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사례]

자원봉사 오시는 선생님들이 과도한 스킨십으로 힘들어 하세요!

지역아동센터에는 늘 선생님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근처의 대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나오시는데 여학생들이 이 선생님만 보면 너무 좋다고 매달리고 안기고 이 남자선생님은 이러한 과도한 스킨십을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사례]

엄마가 싫다고 해도 자꾸 음경을 만져요!

저는 4학년 초등학생입니다. 가끔 샤워를 할 때 엄마가 등을 닦아준다고 들어오셔서 제 음경을 만져요. 그러면서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아이고 우리아들 고추 많이 컸네!” 하지만 엄마가 제 음경을 만지는 게 부끄럽고 싫어요. 엄마에게 몇 번이고 말을 했지만 엄마는 “꼴에 남자라고...엄마인데 뭐가 쑥스러워” 하십니다. 계속 얘기해도 무시하시는데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인가요?

성폭력예방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들이 성폭력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폭력 개념에 대해 단편적인 단어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에서는 그림과 키워드를 사용하여 설명하는데 성폭력에는 어떠한 행동들이 있는지 <수영복>, <보여주기>, <나쁜접촉과 좋은접촉>

이 핵심 키워드로 사용된다.

키워드 <수영복>을 예로 들면 “수영복 입은 부분, 즉, 다른 사람의 생식기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보여주기>키워드를 통해 “직접 신체 를 만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생식기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아이들은 “그럼 부모님과 목욕탕 가서 생식 기를 보여주는 것은 성폭력인가요? 생식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한테 생식 기를 보여줘도 성폭력인가요?”라고 물어본다. 당연히 드는 의문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때 <나쁜 접촉과 좋은 접촉> 키워드로 <수영복>과 <보여주기>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을 설명해준다. 가족과의 포옹은 기분 좋은 접촉일 수 있다. 하지만 길을 가던 사람이 강제로 나를 안는다면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접촉이고 나쁜 느낌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쁜 접촉과 좋은 접촉을 구분하고 이런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나와 타인이 허용할 수 있는 접촉인지 용납할 수 없는 접촉인지를 구분하는 교육 인 경계교육이다. 특히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건강한 경계교육이다. 즉 나와 타인(낯선 사람 뿐 아니라 부모, 친구, 이웃사람들)의 경계를 구분 짓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관계일지라도 나에게 불편하고 힘든 행동들은 표현할 수 있어야하며, 나 또 한 내가 즐겁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도 상대방이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좋은 접촉인지, 나쁜 접촉(나와 타인이 허용할 수 있는 접촉인지 용납할 수 없는 접촉인지)인지 구분하고,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평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편안하게 잘 표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물론 아이들의 의사표현을 존중할 수 있는 어른들의 자세가 전제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첫 번째 사례에서 성 욕구와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 면서, 그와 동시에 성에 대한 느낌과 실천이 나에게서 즐거울 수 있지만 다른 친구들에게는 나쁜 느낌이 들고 힘들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보통 성폭력은 어른이 아동에게 가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또래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놀이라고 생각하는 장난이 성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장난과 폭력을 차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나와 타인 사이의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 반드시 스킨십 일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사례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의 행동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얘기하고 또한 아이들에게도 다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 한다.

세 번째 사례는 아이들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아이와는 언제까지 목욕을 해야 하는지? 혹은 더 이상 부모와 같이 목욕 안하겠다고(뽀뽀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부모님들 많다.

예를 들면 나는 어린 시절 언젠가 부터 부모님들과 같이 자는 것이 불편했고 남동생이 속옷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이 싫었다. 요즘도 11살이 된 아들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속옷도 입지 않고 한참을 돌아다닐 때 불편하다. 11살 아이가 성적인 존재로 보여서 인가? 아니다. 친밀한 관계 일수록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일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하도록 강요하면 아동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부모와 뽀뽀하는 게 싫다고 하면 머리를 쓰다듬거나 포옹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싫어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꼭 스킨십으로 애정을 표현하거나 확인 받을 필요는 없다. 같이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해도 아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지 느낄 것이다. 우선 가족 내에서 경계를 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성폭력은 상당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움요청하기!

아래 사례는 성폭력예방 교육에 사용되는 영상을 소개한 글이다. 5살에 성폭력을 경험한 정아의 일을 영상으로 각색 하였다.

- 네 잘못이 아니야! [출처 : EBS 지식채널e]

어느날 정아(가명)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 “정아 어머니님, 요즘 정아가 이상해요. 특히 남자 아이들 때리는 거 보면 섬뜩할 정도예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정아 : 수업 시간에 옆드려 있었는데 옆에 있던 남자애가 “담임이 너 째려봐.” 라며 귓속말을 했다. 귓가에 남자애의 숨소리가 닿는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다.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숨을 쉴 수 없었다.

엄마 : 왜 자꾸 남자 아이들을 때리냐고 혼내고, 달래봐도 아이는 아무 말이 없다. 왜 그럴까? 사춘기

라서? 혹시, 그때 그 일을 기억하는 걸까? 7년 전의 그 일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아는 그때 겨우 다섯 살이었잖아.

이웃집아저씨 : “정아야, 우리 비밀 놀이 할래?”

정아 : 친절한 옆집 아저씨가 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저씨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저씨는 내 몸을 만지면서 부드럽게 귓속말을 했다. “재밌지? 이걸 우리 둘만의 비밀 놀이야. 비밀이 뭔지 알지?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 말하면 넌 끝장이야.”

다섯 살짜리 꼬마는 비밀 놀이가 싫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놀이는 계속 되었다. 비밀 놀이가 끝난 건, 엄마가 알게 된 다음부터였다.

엄마 : 하필 나에게,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난 뜨거운 물로 아이의 몸을 박박 씻기며 말했다. “왜 따라갔니? 그런 네 잘못이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다 잊어버려.”

정아 : 남자 아이가 귓속말을 하자, 그때 그 일이 떠올랐다고 엄마에게 말했다. 그러자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 “모두 엄마 잘못이야. 그때 엄마가 널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거야. 정아야, 정말 미안해.”

정아 : 어떤 이는 재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개에게 물린 거라고 생각하러지만 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음 좋겠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위 영상은 <성폭력 피해자와 공감하기> 교육에 사용되는 영상이다. 정아의 경우도 이웃집 아저씨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뒤 비밀유지 강요로 도움요청이 지연됐다. 도움요청을 받은 엄마는 성폭력 사실을 안 이후에, 사건을 해결하고 정아의 아픈 감정을 지지하기 보다는, 사건을 감추고 아이의 잘못이라고 했다. 인정하기 싫지만 아동성폭력의 60% 이상의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다. 이웃집 아저씨, 친구, 친척 심지어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도 있다. 아동성폭력 사실 자체가 알려지기 어려운 이유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건강한 경계교육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 교사 등 꼭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 요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동성폭력에서는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비밀을 강요하는 단계가 나타난다. 그로 인해 도움요청이 지연 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친밀한 타인이 상처를 입히거나 괴롭히는 경우에도 꼭 도움요청을 해야 하며 아이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이웃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 아이들에게 성폭력 상황을 겪었다면, 반드시 주변의 믿을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알려주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성폭력예방 교육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이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는 교통사고처럼 아동의 실수가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넌 이제 내가 해줄래! 넌 잘못이 없어.

정아에게!

안녕, 정아야 난 너랑 비슷한 일을 겪은 ○○라고해! 만나서 반가워!

나는 8살 때 모르는 아저씨가 막 몸을 만지며 우리 집에 가자고 했어. 그런데 나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지 대신 난 그 일을 할머니께 얘기 드렸어. 근데 할머니는 너와 똑같이 내가 잘못된 거라고 말했지. 그것 때문에 그 아저씨를 만나기만 하면 정신이 이상해지고 그 하루는 울기만하는 하루였지.

그래서 그 일이 2학년 때 까지 이어졌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걸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넌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해 주셨지 난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좋아했어. 넌 이제 내가 해줄래! 넌 잘못이 없어...안녕~

한 아동이 정아의 영상을 보고 작성한 활동지이다.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피해자유발론이 존재한다. 특히 아이들이 성폭력을 겪었을 때 제대로 저항하거나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위 사례와 같이 아동이 피해를 먼저 말한 경우라면, 할머니와 같은 대응은 아이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 또한 아이의 심리적 치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이후 과정은 어른이 나서서 도와줄테니 안심하라고 말해주는게 중요하다. 어떤 경우든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님을 이해시키고 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이므로 피해 아동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해줘야 한다.

올바른 성교육과 건강한 경계교육 어른부터!

학부모들에게 작년 한 해 언론에서 보도 된 사건 중 걱정스러운 사건을 물어보면 대부분 아동성폭력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교사와 부모님들의 관심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 교육은 늘어가고 있지만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2012년 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고, 영등포에서는 학부모강좌(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를 진행했다. 지역아동센터와 학부모강좌에서 느낀 점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아동 성폭력의 문제는 아이를 방치해서 발생하거나, 혹은 아이들만 교육 받으면 되는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아동 성폭력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성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누구에게 도움요청을 해야 하는지 몰라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말이다.

나는 정아와 같은 아이가 도움요청을 하고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른인가? 한번쯤 돌아보았으며 한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해 본다. 부모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 혹은 아동들은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면...아마도 이런 날은 멀지 않아 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밤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아동들의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들과 교사들, 지역의 모든 어른들에게 성폭력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4

사 례
토 론

연애에도 공부가 필요해!

한혜선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교육개발팀장

[발제] 연애교육

연애에도 공부가 필요해!

한혜선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교육개발팀장

연애에도 공부가 필요해!

연애! 누구에게나 눈을 반짝거리게 하고, 귀를 쫑긋하게 하는 주제이다. 우리 아이들 또한 연애에 관심도 많고, 연애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 사회는 어떤가! 여기저기 연애 얘기가 흘러 넘친다.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을 보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유치원 어린 아이들에게도 “여자친구 없니?” “남자친구 없니?”를 묻기도 한다. 온갖 TV드라마에서는 남녀 주인공들의 연애가 중심이 되고, 그것에 울고 웃고, 연예인들의 가상 결혼 상황을 보여주는 예능프로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아이들 세상도 어른들 세상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온통 ‘연애 권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정작 아이들이 연애를 한다고 하면 어른들은 걱정부터 앞선다. 어른이 되면 하라고 연애를 말려야 하나, 아니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건전한 연애’를 하라고 해야 하나.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편 우리 아이들의 연애는 어떤 모습인가. 온갖 기념일 챙기기, 이벤트 하기, 자랑하기, 부러워하기, 유행처럼 연애하기... 아이들의 연애는 따라하기식이 대부분이다. 이런 아이들은 연애를 하면서 과연 행복할까?

일상적인 성교육 시간에 연애를 하나의 주제로 따로 다루기는 쉽지 않다. 몇 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에서 다루거나, 아예 ‘연애교육 특강’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연애는 딱히 단독 주제가 아니더라도 매 수업 안에 조금씩 다루어져야 한다. 연애 안에는 몸에 대한 것, 성폭력, 성평등, 성에 대한 모든 것이 총

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안녕하세요’라는 TV프로그램에 나왔던 내용이다. 이 영상을 활용해 아이들과 토론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연애교육 사례를 풀어보고자 한다.

의심, 간섭, 집착하는 남자친구가 고민이라는 여성이 나와서 하소연을 한다. 남자친구가 화장하는 것도 간섭하고, 복장도 규제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 여성이 동안이라 술집을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술집 출입을 막기 위해 신분증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휴대폰 내용도 항상 점검하고, 일주일간 압수한 적도 있단다. 이에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란다.

좀 심한 이야기 인듯 하지만, 연애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 성역할 고정화와 폐쇄적인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이다.

연애와 성역할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연애를 잘 하는 사람은 성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다. 아이들 또한 연애를 통해서 성역할을 배우고, 성역할을 강화하기도 한다.

위의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남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자를 자기 방식대로 끌고 간다. 여자는 남자의 그런 점이 싫지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 진정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남자를 사랑하고 헤어질 수 없다고 얘기한다. 이렇듯 연애 관계에서 남자는 리드하고, 여자는 그에 잘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데이트 코스 안내하는 남자와 따라가는 여자, 이벤트를 잘 하는 남자와 감동받을 준비를 늘 하고 있는 여자는 흔히 보이는 모습이다.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길을 걸을 때는 여자를 안쪽으로 에스코트해야 배려심 있는 남자라고 칭찬받고, 데이트가 끝나면 늘 남자가 여자 집에 데려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남자는 보호하는 존재이고, 여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연애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애에서 보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한 형태로 ‘남자는 돈, 여자는 외모’라는 생각도

있다. 보통 테이트 비용은 남자가 대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열심히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느 지역아동센터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머지 여자 친구들이 그 연애를 부러워하며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기가 연애 못한 이유를 외모에서 찾은 것이다.

위의 영상에서도 여성의 사연 편지에 “심지어 나는 예쁘지도 않은데 남자친구가 이런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여성이 등장하자, 진행자들이 “정말 안 예쁘면 어찌나 하고 걱정했다.”, “귀엽다. 역시 사랑받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여자가 예쁘면 남자가 집착하고 간섭하는 게 이해가 간다는 것인가. 영상 속의 남자가 좀 심해서 문제이지, 남자가 예쁜 여자 친구를 걱정하고 어느 정도 간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로 느껴졌다. 이렇게 여자는 예뻐야 사랑받고 연애를 잘 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연애는 특별한 관계? 폐쇄적 연애

연애는 둘만의 특별한 사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연애 또한 많은 인간관계의 하나일 뿐이기도 하다. 그런데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관계는 다 없어지고, 둘만의 폐쇄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연애가 폐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사례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다른 남자들이 있는 곳은 아예 가지 못하게 하고, 누구와 통화했는지조차 감시한다. 그래서 여자의 친구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한다. 여자는 그런 남자가 갑갑하긴 하지만 그만큼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고, 간섭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상대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을 허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휴대폰을 압수, 점검하고, 신분증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이다. 그리고 완전하게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속하는 관계가 되면 둘 다 행복해질 수 없다. 연애를 한다고 해서 다른 관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도 여전히 존재하고, 연애 또한 그 모든 관계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은 비단 이성애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동성애에서도 한쪽에 다른 성역할을 부과한다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연애에서 어른들이 걱정하는 성적인 부분 역시 사실은 어른들의 성문화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남자에게는 과도한 성욕이 당연하고 그래야 남자다운 것이고, 여자는 성욕을 드러내서는 안되며 자기 몸 관리, 단속을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이중적인 잣대가 아이들에게도 내면화되어 있다. 또한 스킨십도 남자가 리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면 여자는 자기 느낌이 어떤지, 욕구가 어떤지를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남자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반응을 먼저 걱정하게 된다. 어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은 연애를 하는 중학생 여자 아이가 상대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연애하면 모든 것을 꺾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걱정을 하셨다.

연애 상대방에게 성적 욕구가 생긴다거나,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는 무시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안 되냐며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폭력일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거나 사귄다고 해서 꼭 스킨십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아이들이 ‘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이고, 상대방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언제, 누구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성적인 실천을 할지’ 평소에 생각해보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 생각은 어떤지, 나의 느낌은 어떤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도 잊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연애도 교육이 필요해!

연애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둘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연애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사회의 고정관념이 내면화되어 남녀 역할을 나누고, 연애방식 또한 어른들, 드라마, 친구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연애교육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면 이래야 하는 것 아니야?” “남자가 뭐 그래?” “여자는 이래야 하잖니?” 이런 연애에 대한 자기의 고정관념을 돌아보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물론 연애를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연애하는 친구가 마냥 부럽고, 뒤처지기 싫어서 유행처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연애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다.

연애를 하더라도 인간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성장하는 연애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다.

연애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연애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때 행복한지 스스로 찾아보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도, 상대방도 행복해질 수 있는 연애! 성장하는 연애가 되도록!!!

5

사
례
토
론

성평등, 행복으로 가는 길

이경희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강사

[발제] 성평등교육

성평등, 행복으로 가는 길

이경희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성교육강사

성평등, 행복으로 가는 길

첫 조카의 돌 선물을 사려고 유아복 매장에 갔을 때다. 앙증맞고 귀여운 아기 옷들을 보다가 분홍색과 파란색 계열이 대부분인 것에 먼저 놀랐다. 그리고 하늘색 내복을 만져 보는 내게 매장 직원이 물었다. “남자 아이 옷 찾으세요?” 순간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의 개성을 지닌 고유한 인격이 아니라 남자 아이나 여자 아이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남자 아이나 여자 아이냐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성장과정이 무수히 많다. 장난감을 사줄 때 남자 아이에게는 로봇이나 총, 칼을, 여자 아이에게는 인형이나 소꿉놀이세트를 사준다거나, 굳이 리본이나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히고 짧은 머리라도 머리핀을 꽂아주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에 대해서도 그 아이의 독특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남자애다 보니까...’, ‘애는 여자애라서...’라며 성별의 특성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성별과 연관된 다양한 메시지들을 흡수하며 자라고 있다.

선배 언니네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을 때, 아이들의 책가방이 마치 맞춘 것처럼 여자 아이는 분홍, 남자 아이는 파랑으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었다. 초등학생 쯤 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자기 물건을 부모가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여자 아이들 대부분이 분홍색을 선택하고 남자 아이들은 대부분 파란색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그 또래 남녀 아이들의 차이

를 반영한 것일까? 그리고 이제 네 살 밖에 안 된 조카가 무엇이든 분홍색으로만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여자 아이의 특성인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인간 유형으로 구분되는 사회에서 성차별 의식이 자라나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느 순간 아이들 스스로가 그러한 성별화된 메시지를 재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평등 교육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몸에 익혀버린 고정관념들을 찾고 바꿔나가기 위한 것이다.

차별은 발견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평등 교육은 먼저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차이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한다.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다거나, 누구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누구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차이에 순위를 매겨서 가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는 것이 차별이다. 키가 크고 작은 건 차이인데, 키가 큰 게 좋은 것이고 키가 작은 건 부족하고 나쁜 것이라고 하면 차별이 된다. 차별은 받는 사람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는 폭력하기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다.

‘차별의 발견’은 차별 인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보는 영상이다. 이 영상은 세계인권선언 2조에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차별적인 요소들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차별들이 발견됨으로써 시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차별이 시정된 사례로 ‘살색 크레파스’ 이야기가 나온다. ‘살색 크레파스’는 특정 색을 살색으로 정함으로써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연주황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연주황이라는 이름에 대해 다시 문제 제기를 한 이들이 있다. 바로 초등학교생들이다. 아이들은 한자어로 된 연주황이라는 말이 크레파스를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에게 차별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요청을 했고, 국가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여 이 크레파스의 색을 ‘살구색’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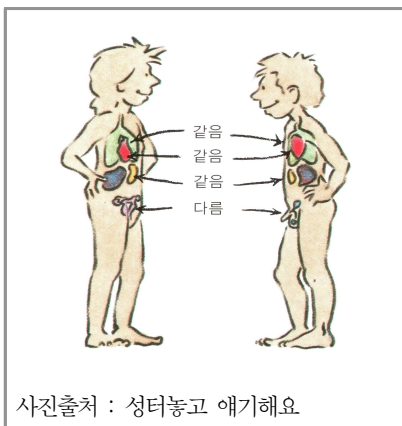
초등학교생들이 직접 나서서 차별을 발견하고 바꾸어낸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차별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면, “언니니까 양보하라고 해요.”, “동생은 형 말 들어야 한다고 해요.”, “학생들은 무조건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해요.”

등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차별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완전 짜증나요.”, “화나요.” 하고 소리친다.

차별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면, 차별은 계속되고 누군가는 그 차별로 고통 받게 된다. 차별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변화해 왔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우리 모두 차별 받는 것이 싫은 만큼 차이는 존중하고 차별은 자꾸자꾸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한다.

성차이와 성차별

차이와 차별 개념은 성에서도 적용된다. 성차이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말한다. 남자와 여자는 생식기 모양이 다르다거나 사춘기 때 남자는 몽정, 여자는 월경을 한다는 것처럼 남녀의 몸이 서로 다른 것이 대표적 예이다. 성차별은 남자와 여자의 이런 차이를 이유로 서로 다른 대접을 하는 것이다. 성별에 따라 ‘남자는 이래야 돼, 너는 여자는 이래야 돼.’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다.



옆의 그림은 남녀의 몸에서 생식기 모양 외의 내장 기관이 모두 같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남녀의 분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말들 대부분은 차별을 차이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약하다,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다, 남자는 수학 여자는 언어’ 등 남녀를 구분해서 하는 이런 말들은 성차별을 마치 성차이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이런 대부분의 차이는 개인의 차이일 뿐 성별의 차이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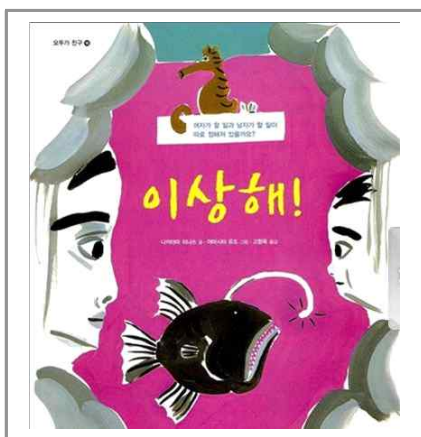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이런 성차이와 성차별 개념을 설명하고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는 퀴즈를 풀어보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정답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보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힘이 세다.’라는 퀴즈 문항에는 차별이라고 쉽게 정답을 맞춘다. 그리고 “역

도선수 장미란처럼 힘센 여자도 있어요.”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힘이 센 여자 아이는 남자 같다는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하면 “맞아요!”하며 속상했던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를 종종 볼 수 있다. 차별의 개념을 알고는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차이와 차별> 퀴즈는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일상생활 속의 성차별

성차별은 우리 생활 곳곳에 녹아 있다. 일상 속의 차별사례를 통해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동화책으로 진행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상해>라는 동화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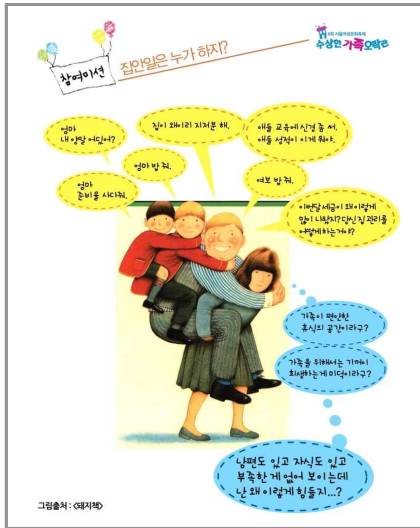
“이모, 이모, 왜 화장 안 해? 여자인데. 이상해.”

“이모, 이모, 머리가 왜 그렇게 짧아? 남자 같아. 이상해.”

동화 속 주인공이 이모에게 하는 질문들이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이런 질문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흔한 일이다. 나도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첫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 남자예요? 여자예요?”라고 물었다. 여자라고 이야기하자 “그런데 왜 머리가 짧아요?”라며 “남자 같다.”는 것이다. 겉모습만 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을 넘어 여자인데 왜 남자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인 것이다.

<차이와 차별> 퀴즈의 정답을 잘 맞추는 고학년들과는 달리 저학년들은 외모에 따른 성별 구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쉽게 드러난다. 나와 다른 성별의 존재를 인식하고 호기심을 갖는 시기의 특성도 있지만, 그 구별에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게 되고, 고정관념이 생기기도 한다.

<이상해>는 수중카메라맨인 이모가 ‘남자, 여자’ 구별하기를 좋아하는 주인공을 바다 속으로 데려가 여러 물고기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자 역할, 여자 역할들이 물고기들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를 통해 주인공 아이는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고학년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잘 아는 <돼지책> 속에서 성차별 찾기를 진행한다. 책을 꺼내면 이미 봤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시간에는 동화책 속에 숨어 있는 성차별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보자고 한다. ‘아주 중요한 회사’에 다니는 피곳 씨와 ‘아주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사이먼과 패트릭, 그리고 집안일을 모두 다 하고 회사에도 다니는 엄마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이 동화는 일상 생활 속 성차별의 문제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책 속에 어떤 성차별이 숨어 있느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엄마만 집안일을 하는 것’이라고 쉽게 찾아낸다. 그러면 아빠와 아이들이 엄마를 괴롭히려는 나쁜 마음이 있어서 차별하는 것일까? 아니다. 이 집 사람들은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성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도 ‘남자니까, 여자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

또 책속에서 아빠가 회사에 다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엄마가 하는 집안일이나 엄마가 회사에 가는 일은 중요하지 않게 이야기 하는데 이것 또한 성차별이다.

아이들과 <돼지책>을 볼 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부부와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이 모델인 이 책이 차atch하면 이성애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해요.”라고 하거나 “우리 집은 아빠가 다 해요.”라는 말들을 할 때, 집안일은 ‘엄마 일 아빠 일’로 나누거나, ‘엄마 일, 아빠 일, 아이들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서 하는 것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설명을 꼭 덧붙인다.

현실에서 아이들이 집안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집안의 성평등 문화로부터 나오기 보다는 맞벌이나 한부모 같은 생활적 조건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모들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한편,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은 하지 않는 집안일을 나만 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집안일은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니까 함께 사는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하는 것이 평등한 가족이라는 설명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동화책을 통해 찾아 본 이러한 성차별들은 아이들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 그 중 하나는 남자 일과 여자 일을 나누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자신이 받은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우유 배달은 남자 아이들만 시켜요.”라거나 “힘든 건 남자들만 시켜요.”라는 남자 아이들의 불멘소리를 종종 듣는다. 힘든 일을 남자 아이들에게만 시키는 것은 물론 남성에 대한 차별이지만, 그 속에는 남자는 힘이 세고 무거운 물건도 잘 날라야 하고, 여자는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남녀 모두에 대한 성차별 고정관념이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한 성별에게만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여자 아이들이 혼자 하기 힘든 일이라면 둘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훈련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법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누군가 대신해 주는 방식은 그 사람을 주체로 키우는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를 표현하는 말들 속에도 고정관념은 숨어 있다. “남자가 치사하게...”, “남자가 왜 그렇게 쪼잔해!”, “남자가 그것도 못해서...” 등 남자 아이들에게는 의리 있고 대범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반면 “여자 애가 왜 그렇게 설쳐대.”, “여자 애가 성격이 괘괄해서...” 라는 말들은 여성은 다소곳하고 얌전해야 한다는 기대가 어긋났을 때 하는 말들이다.

아이들은 이렇게 성별에 따른 역할 나눔과 성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을 기대 받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도 그런 문화를 재생산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성차별 개념은 알지만 일상생활에서 성평등 실천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정답이 무엇인지는 배워 알지만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아이들이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남자~, 여자~’로 시작되는 말들 대신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표현해 주고, 아이들이 어

떤 잘못을 했다면 “남자(여자)가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 행동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일상의 언어들을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속의 성차별 바로 보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고정관념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 이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성평등 교육 마지막에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한다.

아이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는 알고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하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알죠? 이때,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해방이 되어서 일본에 끌려갔던 여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여성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집밖에도 잘 못 나가고 오랜 세월 동안 마음고생하며 살았어요.”라고 이야기 하면 아이들은 “정말요?”, “몰랐어요.”라며 깜짝 놀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아이들은 “일본놈들 다 죽여버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이 잘못된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이 두 배로 고통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일본이 저지른 성폭력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대응을 한 것은 모두 성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 군인들이 죄 없는 우리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잡아가 성폭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또한 그 피해자인 여성들이 자신의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숨어 살게 만든 것도 여성에게 순결을 강요하는 성차별 사회의 폭력이었다. 여성이 성폭력을 경험한 것이 순결을 잃은 것이고, 여성에게 순결은 목숨보다 중요하며, 순결을 잃은 여성은 집안의 수치라는 고정관념은 이 여성들이 할머니가 될 때까지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환갑이 지난 할머니들이 자신이 성폭력을 경험한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게 되었다.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담긴 ‘비공식 세계 신기록’이라는 영상을 함께 보며 1,000회가 넘도록 수요시위를 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 사과하는 것과 다시는 이러

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준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차별은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성평등 교육에서는 단순히 성차별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함께 참여하여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평등 수업의 마지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편지쓰기를 한다. 성차별로 고통받았던 할머니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할머니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마음을 전하는 편지쓰기는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실천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보는 과정이 된다. 아이들은 할머니들의 용기와 끈질긴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동안 떠들고 장난하기를 멈추지 않던 아이들도 이 시간만큼은 진지하게 ‘할머니 힘내세요.’라는 편지를 쓰곤 한다.

함께 행복하기 위한 성교육

성교육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통념들과 마주하는 일이다. 몸과 성, 성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은 아이들이 이 사회로부터 배운 것들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전하는 교육과는 달리 많은 성찰이 요구된다. 강사인 나 또한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성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스스로도 그러한 성차별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들이라는 믿음도 필요하다.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던져 보곤 하는데, 뻔하다 못해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큰소리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대답한다. 그렇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성차별이 있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 어렵다. 차별은 불행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교육은 우리가 모두 함께 행복하기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나는 이야기한다.

아이들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당당한 성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illegible]